



<b>코스피</b> 2186.45 (+35.14)	<b>코스닥</b> 666.09 (+25.15)
<b>금리</b> (연고래 3%) 1.42 (+0.05)	<b>환율</b> (USD-달러) 1159.10 (-11.70) (9일)



[산업]  
현대·기아차 SUV  
美 소비자 사로잡다  
06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포스코 스마트공장 제2고로에서 근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합뉴스

### 文대통령, 경북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 “철강에서 배터리로 포항, 미래경제특구”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포항 내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된 GS건설·경상북도·포항시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에 참석해 “(이번 투자로)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번 투자는)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하다.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이 ‘산업의 쌀’이라면,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쌀’이라며 “핸드폰·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오는 2025년이면 (배터리 시장은)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이렇게 격려했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성장이 유망한 ‘배터리’를 미래먹거리사업으로 해 포항시에 오는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자한다. GS건설의 투자로 연간 최대 1000대

전기차를 처리(수집-보관-해체-재활용 순)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 포항은 이차전지 산업의 전진기지로 활약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처음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직접 찾은 이유는 이번 GS건설·경상북도·포항시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이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로 성사됐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노력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참석 후 포스코의 스마트공장을 방문해 중소기업·대학과 함께 개발한 AI(인공지능) 기반 최첨단 고로를 시찰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포스코 스마트공장은 세계경제포럼이 작년 7월 선정한 등대공장으로도 정평이 났다. 등대공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도입해 제조혁신을 이룩한 공장을 뜻한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삼성ENG, 4.3조 알제리 정유사업 수주

스페인 테크니카스社와 공동계약

삼성엔지니어링이 알제리에서 대형 정유 플랜트를 공동수주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알제리 최대 국영석유회사 소나트랙과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하시메사우드 정유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프로젝트를 스페인 테크니카스레우니다스와 공동으로 수주했으며 총 계약금액 중 삼성엔지니어링의 계약분은 약 1조9000억원이다.

알제리 수도 알제에 위치한 소나트랙 본사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카멜 에딘 치키 소나트랙 사장, 후안 야도 테크니카

스레우니다스 사장 등 각사의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다.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남동쪽으로 600km 떨어진 하시메사우드 지역에 건설되는 이번 플랜트는 하루 약 11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 처리하는 설비로 삼성은 EPC(설계, 구매, 시공) 전과정을 일괄타키(방식으로 52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로 알제리 최대 국영석유기업인 소나트랙과의 파트너십을 확실히 다지게 됐다. 소나트랙은 정유, 가스 등 에너지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어서 향후 연계수주도 기대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카피캣’ 中, 이번엔 삼성 ‘세로형 TV’ 모방

### CES 2020

하이센스, TCL 등 중국 업체 4곳 삼성 더세로·더프레임 유사품 선보

‘CES 2020’에서도 중국 TV 업체의 모방 정신이 이어졌다. 하이센스, TCL, 창홍, 스카이워스 등 중국 업체 4곳이 삼성전자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CES 2020’에서 중국 업체의 마음을 사로잡은 삼성전자 제품은 ‘더 세로’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중국 업체가 세로형 TV를 선보였다. 더 세로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지난해 5월 국내에 출시한 TV 제품으로 44형의 QLED 디스플레이를 가로·세로로 전환할 수 있는 TV다.

가로형으로만 보던 TV의 고정관념을 깬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면 방향과 일치해 모바일 경험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인기를 증명하듯 전시장에 있는 더 세로에는 CES 전시 기간 내내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내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더 세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CES에 참가할 수 많은 TV 제조 업체의 부스를 돌며 다양한 TV를 살펴봤



하이센스가 전시 중인 ‘오토 로테이트 TV’ (55V5F). /구서윤 기자

다. 그 중 하이센스, TCL, 창홍, 스카이워스가 세로형 TV를 선보였다.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 업체라는 것이다. 더 세로가 좋은 반응을 얻자마자 중국 업체들도 뒤따라 유사한 제품의 출시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다. LG전자도 출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세로형 TV가 하나의 트렌드로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하이센스 부스에 들어가자 가로 형태의 TV가 회전해 세로 형태로 바뀌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삼성의 더 세로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하이센스의 ‘오토 로테이트 TV’를 본 관람객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제품은 4K 제품으로 55형이다.

창홍도 같은 형태의 TV ‘치크 스피ن(CHIQ Spin)’을 선보였다. 방향 전환을 통해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걸 나타낸다. 55형과 65형으로 나오며 4K 제품이다.

TCL은 두가지 형태의 세로형 TV를 전시했다. 하나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세로형 TV이고, 다른 하나는 액자형의 세로형 TV다. 그중 ‘프레임 TV’는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을 연상케 했다. 더 프레임은 미술 작품을 화면에 띄워 작품처럼 활용 가능한 TV다. 현재 1000여 점의 그림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TCL이 선보인 프레임 TV는 제품 특징부터 여러 개의 그림을 보여주듯 전시한 모습까지 삼성과 모두 같았다. 이름에도 ‘프레임’이 똑같이 들어갔다.

스카이워스도 세로형 TV와 프레임 TV를 전시하고 있었다. “삼성전자에도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알고 있나?”는 물음에는 답을 회피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애플워치가 나와도 2시간 만에 똑같이 만들어낸다”며 “기술력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법과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

CES 2020  
관련기사 3~5, L1, L7면



CES 전시관 방문한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Tech East LVCC에서 미래컴퍼니, 두산 모빌리티, 한글과컴퓨터, 서울반도체 등 국내기업과 브레인코, 마크포지드 등 해외기업의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김지형 위원장 내정자 “JY 만나 독립성 약속”

### 삼성 준법감시처 내달 공식 출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설립이 공식화됐다. 다음달부터 주요 계열사 7개에서 운영을 시작해 전 계열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지와 자율성 등에 우려가 크지만, 이재용 부회장 등 최고 경영자들도 보장을 약속했다고 알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사진)은 9일 서울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를 우선 설명한 뒤, 위원회 구성과 원칙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다음달 공식으로 출범을 계획 중이다.

김 전 대법관은 당초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제안을 거절했었다고 말했다.

다. 당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사 재판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면피용이 아닌지, 위원회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이 커서였다.

그럼에도 결국 제안을 받아들인 이

유는 삼성이 먼저 스스로 변화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사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을 향한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먼저 벽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도.

김 전 대법관은 만일을 위해 수락에 앞서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 여러번 다짐을 받았으며,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서 이를 약속 받았다고 전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 KCGI·반도·국민연금 ‘지분매집’… 한진, 경영권사수 고심

## 한진칼, 3월 주주총회

총수일가 지분 24.79% 달하지만 경영권 두고 ‘남매·모자의 난’ 등 갈등 지속엔 재선임 여부 불투명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한진칼의 주주총회에서 누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3월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최근 한진가 안팎으로는 주주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총수일가 사이에서는 경영권을 두고 ‘남매의 난’을 넘어 ‘모자의 난’까지 불거졌으며 단일 주주들은 지분 늘리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재선임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는 만큼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는 누가 쥐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진칼의 전체 지분 가운데 총수일가를 제외한 단일 주주 중 최대 주주는 KCGI(강성부펀드)다. KCGI는 지난달 23일 기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외벽에 붙어 있는 그룹 로고 모습. /연합뉴스

15.98%에서 17.29%로 지분을 늘렸다고 공시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JV(조인트벤처)를 맺은 델타항공이 10%를 보유하고 있고 ▲반도건설 6.28% ▲국민연금 4.11% 등이다.

총수일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6.52%,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5.3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각각 6.49%, 6.4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전체의 지분을 합하면 24.79%로 KCGI보다 월등히 많아 경영권방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 윈을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조 회장을 비판한 만큼 한진가의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후 조 회장은 어머니 이 고문의 자력을 찾아가 안쟁을 벌여 ‘남매의 난’에서 ‘모자의 난’으로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방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총수일가를 제외하고 3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진 반도건설도 최근 지분 늘리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한진칼 지분이 6.28%였으나 최근 추가 매입해 8~9%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더 살 수도 있다”고 말해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단일 주주로서는 최대인 사모펀드 KCGI도 한진칼의 지분을 늘려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KCGI는 한진칼의 지분이 기존 15.98%에서 17.29%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일 신민석 KCGI 부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안만 발표했을 뿐 재무구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재선임 여부는 더 불투명해졌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 기

준 보유한 대한항공 주식 지분이 종전 9.90%에서 11.36%로 늘었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진과 관련된 지분 중 ▲대한항공 11.36% ▲한진 9.62% ▲한진칼 4.11%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지분을 늘림에 따라 이번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적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지분율로 보면 일단 한진칼의 주주는 사내이사 재선임이 일반 결의사안이라서 과반만 넘기면 된다. 그래서 지분 구조를 보면 삼남매와 어머니가 합심을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그 안에서 만약 불협화음이 있다면 다른 얘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 안에서 갈라설지 안 설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지분이 아직은 4%대라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지금보다 많은 주식을 추가 매입해야 하는데, 연금 입장에서 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 1면 ‘김지형 위원자 내정자…’서 계속

# 윤종원, 노사갈등 수습 할 ‘내부인사 카드’ 만지작

IBK기업은행장

노조 저지에 일주일째 출근 못해 계열사 CEO, 부행장급 인사 집중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으로 출근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대에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윤 행장은 이날 향후 계획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풀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본점 출근 길이 노동조합의 저지로 일주일째 막힌 가운데 윤 행장이 인사카드를 통해 노조와의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임기가 만료된 계열사 대표에 노조의 신망이 두터운 내부인사를 선임, 노사갈등을 수습할 것이라 분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행장은 서울 종로구 위치한 금융연수원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윤 행장은 사업부문별 임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계열사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윤 행장은 우선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은행의 부행장급 임원 인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총 8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 장주성 IBK연금보험 대표, 서형근 IBK시스템 대표는 지난달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한시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고, 시석중 IBK자산운용

대표는 다음달 20일 임기가 종료된다. 기업은행의 부행장급 임원 인사도 시급하다. 연초 임기가 만료되는 부행장급 이상 임원은 5명이다. 임상현 전 무이사(수석부행장)와 배용덕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김창호 소비자브랜드 그룹 부행장 등이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된다. 최현숙 여신운영그룹 부행장의 임기도 다음달 20일 끝난다. 노조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탕평인사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후임 전무가 누가 될 지 관심이 다. 기업은행 전무이사는 은행 실무 경

영을 총괄하는 2인자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따라서 후임 전무이사는 직원과 노조의 신망이 두터운 내부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노조원들은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윤 행장과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총선이 열리는 4월까지 출근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의 출근 저지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계열사 대표와 임원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전무이사 후보군으로는 14명의 부행장과 계열사 CEO가 모두 거론된

## <임기 끝나는 계열사 대표·임원>

·IBK기업은행 계열사 대표

계열사 대표	임기 만료 시기
장주성 IBK연금보험 대표	2019.12.3
서형근 IBK시스템 대표	2019.12.12
김영규 IBK투자증권 대표	2019.12.14
시석중 IBK자산운용 대표	2020.02.20

·기업은행 부행장급 임원

임원	임기 만료 시기
임상현 수석부행장(전무이사)	2020.01.20
오혁수 글로벌자금시장그룹	2020.01.20
배용덕 개인고객 그룹장	2020.01.20
김창호 소비자브랜드그룹장	2020.01.20
최현숙 여신운영그룹장	2020.02.20

다. 기존에는 부행장 중 한 명이 전무이사로 승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임상현 현 전무가 경영지원그룹 담당 부행장에서 IBK저축은행 대표로 자리를 옮긴지 6개월만에 전무이사로 온 전례가 있어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임원인사 수요가 지난해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은행장의 인사와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 본부장 등 인사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

# 삼성 계열사간 협약 독립·자율 원칙설정 부패·위반 등 감시

이어서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과, 사회가 동참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원장 자리를 승낙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우선 계열사 협약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단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 계열사간 협약을 맺고 위원회 감시를 받게된다. 단, 위원회는 회사 내부가 아닌 독립 기구로, 업무를 도울 사무국 독립 운영 방법도 고민중이다.

기본 원칙은 ▲ 독립성과 자율성 ▲ 준법 감시·통제 ▲ 구체적 실행방안 구현 ▲ 전방위적인 준법감시 등 4개로 설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일감몰아주기나 뇌물수수 등 부패뿐 아니라, 노조 문제와 오너일가 승계 문제 등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를 운영할 위원도 내정했다. 법조와 시민사회, 학계, 회사 등 4그룹에서 선정한. 외부위원을 압도적 다수로 배정하고,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해 사회 대표성을 확보하며,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잡힌 견해를 견지한 사람 등 3개 원칙을 기준으로 했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고문 등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김 전 대법관은 모든 권한을 삼성으로부터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강조했다.

# 전-당기 감사인 갈등조율 협의체 만든다

금융위, 전기오류수정 협의회 운영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율 사실을 감안

해 제재 수준도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완화방안으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해 충분한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기존 감사인 직권 지정제의 사유도 더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당기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 기초잔액에 대해 간단한 잣대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 회계처리에 대한 전·당기감사인간의 의견 불일치로 전기오류수정은

둘러싼 갈등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율절차를 담당할 전기오류수정협의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1인)와 회계전문가(2인)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된다. 조율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 또는 당기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김재용 기자 juk@

# CES 핫플된 삼성 부스... 정·재계 인사 '혁신 삼매경'

박원순 시장 등 각계각층 인사 방문 경쟁사 수장인 LGD 정호영도 찾아 삼성 경영진과 악수하며 '화기애애' 박용만, 윤부근 부회장과 부스투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 개막 이틀째인 9일(현지시간) 박원순 서울 시장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삼성전자 부스를 찾는 등 CES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다.

오전 9시 20분경부터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내 삼성전자 부스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중희 삼성전자 사장이 나란히 서서 예정된 '손님'들을 기다렸다.

삼성전자는 참가업체 중 가장 넓은 3368㎡(약 1021평)로 부스를 꾸몄다. 삼성을 찾은 인사들은 VIP 투어를 통해 컴패니언 로봇 '볼리', 사물인터넷(IoT) 환경, 가정용 식물재배기 등을 관람하고 일반 부스 공간으로 이동해 다양한 TV 제품과 가전 제품을 살펴봤다.

오전 9시 50분경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이 삼성전자 부스에 입장했다.

정 사장은 윤부근 부회장, 한중희 사



박원순 서울시장(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의 삼성전자 전시관을 찾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2020'가 열린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삼성전자 부스에서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왼쪽)과 한중희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악수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장을 비롯해 TV 관련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펼쳐졌다. 정 사장은 LG디스플레이 수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 경영진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장은 만남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정 사장이) 와주셔서 감사하죠"라며 "한상범 전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자주 만났었는데 정 사장은 처음 만나다"고 말했다.

잠시 후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

장이 삼성전자 부스를 찾았다. 두산 부스 방문 후 삼성 부스로 온 박 회장은 윤 부회장과 함께 부스 투어에 나섰다.

투어를 마친 후 박 회장은 '인상 깊었던 제품'을 묻는 질문에 "미래 사업화하겠다는 아이디어도 좋았고, 디스플레이나 모바일은 삼성이 세계 톱이잖아요. 정말 자랑스럽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한편으론 마음이 좀 그럽다"며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중국보다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론 같은 분야만 봐도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는데 규제의 틀 때문에 발전 못한 것 아닌가"라며 "의원님들이 많이 와서 보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시 20분쯤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왔다. 박 시장이 "부스에 어떤 제품들이 있냐"고 묻자 한 사장은 "마이크로 LED 등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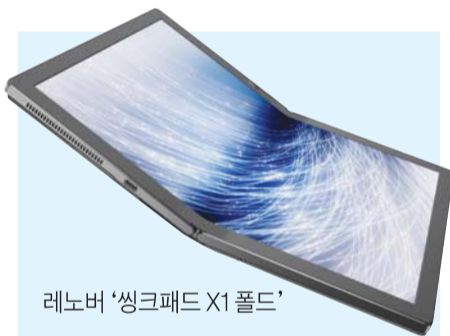
고 설명했다.

11시경에는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이 등장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로봇 '볼리'에 관심을 보이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날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제주지사, 박정호 SKT 사장, 하현희 LG유플러스 사장 등이 삼성전자 부스를 찾았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oul.co.kr

## 스마트폰... 노트북... 웨어러블... 글로벌 '휘어' 잡는다



레노버 '씽크패드 X1 폴드'



LG디스플레이가 공개한 폴더블 노트북.



로올 '플렉스파이'.



TCL이 콘셉트 버전으로 전시한 손목 등에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 클램셀 폴더블 폰. 작동되지 않는 모형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휘어지고 접히는 디스플레이 향연 삼성 '갤럭시 폴드' 관람객들 감탄

레노버, 세계 최초 '폴더블 노트북' TCL '클램셀' 형태 모형으로 전시 중 화웨이·로올도 폴더블 폰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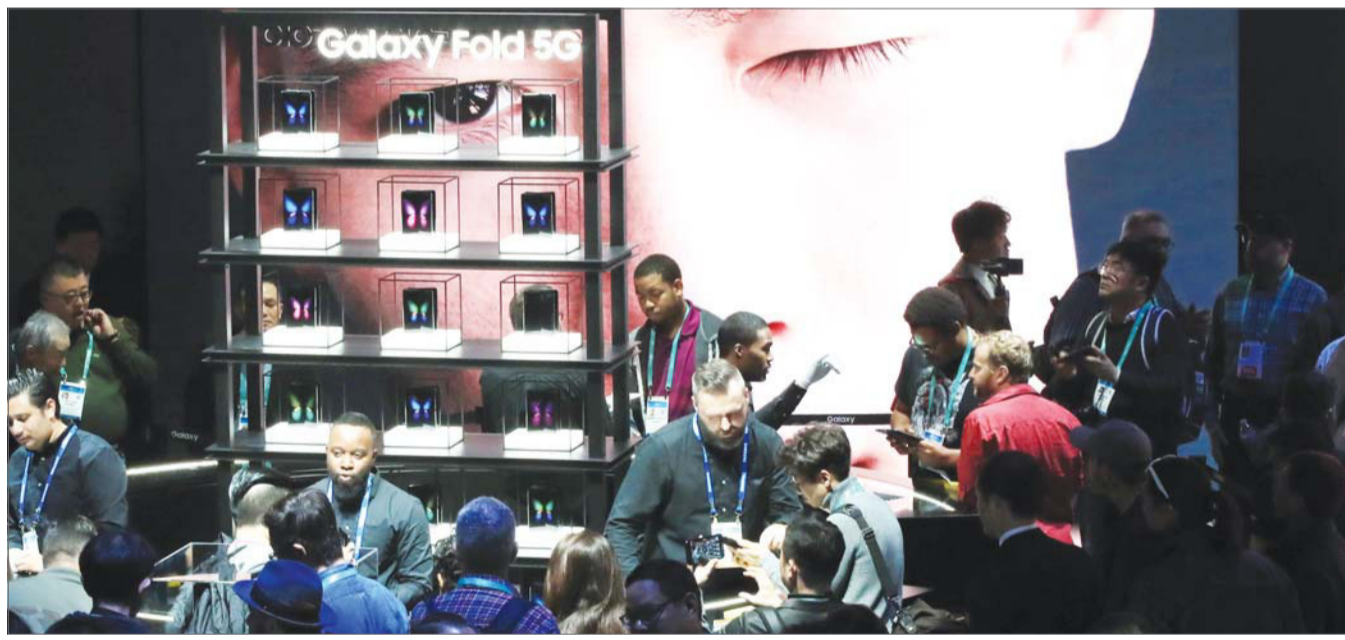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0'에 스크린을 접을 수 있는 제품이 등장하면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미 상용화된 폴더블 스마트폰과 더불어 폴더블 노트북도 새롭게 공개됐다.

전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 '플렉스파이'를 선보였던 중국 스타트업 로올은 이번에도 같은 제품을 전시했다. 지난 2018년 10월에 출시돼 시간이 꽤 흐른 만큼 'CES 2019'에서 공개했을 때만큼의 열기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폴더블 폰 체험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화면이 깔끔하게 접힐 것으로 예상되는 폴더블 폰과 달리 로올은 화면을 접을 때의 느낌이 다소 뻣뻣한 편이며, 반으로 접은 상태의 모습도 화면 사이 공백이 큰 모습이다. 완전히 반으로 접히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의 주름은 찾아볼 수 없다. 7.8인치 크기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 화면이 바깥쪽으로 접히는 아웃폴딩 방식이다.

전시장에서 만난 로올 관계자는 "아마도 곧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



'갤럭시 폴드'에 쏠린 눈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2020'가 개막한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삼성전자 부스에서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이 갤럭시 폴드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다. 전시장 관계자 8명이 관람객들이 갤럭시 폴드를 만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체험을 하는 관람객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갤럭시 폴드는 갤럭시 폴드 화면은 펼쳤을 때 7.3인치, 접으면 4.6인치다. 접고 펼 때의 느낌은 부드러웠다. 접은 상태에서 옆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펼치면 '훅'하고 빠르게 펼쳐진다. 양쪽에 자석이 탑재돼 닫을 때는 '찰칵'하는 느낌으로 닫힌다. 갤럭시 폴드는 책처럼 화면이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이다.

화웨이도 이번 CES에서 자사의 첫 폴더블 폰 '메이트 X'의 실물을 전시했다. 전시장에는 체험용 폴더블 폰이 3대

에 그쳐 체험을 위해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펼쳐진 상태에서 메이트 X를 받아든 느낌은 나쁘지 않았다. 메이트 X는 화면을 펼치면 8인치이고, 접으면 전면 6.6인치, 후면 6.38인치다.

아웃폴딩 방식으로 화면을 반으로 접을 때는 뻣뻣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메이트 X를 만져보던 한 관람객은 화면이 접히는 부분을 가리키며 "울퉁퉁(bumpy)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 화면을 펼치려면 화면 정면에 위치한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측면에 위치한 갤럭시 폴드 보다 펼칠 때의 번거로움이 조금 느껴졌다.

TCL은 콘셉트 버전의 폴더블 폰을 전시했다. 작동이 전혀 되지 않는 모형으로, TCL 관계는 "이런 느낌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쯤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면을 수직으로 접는 '클램셀(조개껍질)' 형태의 폴더블 폰과 손목에 스크린을 감싸는 듯한 제품도 전시했지만 이 역시 모형에 불과했다.

폴더블 노트북도 등장했다. 레노버는 세계 최초의 폴더블 PC인 '씽크패드 X1 폴드'를 전시했다. 경량 합금과 탄소 섬유로 제작됐으며, 가죽 폴리우레탄 코팅이 들어 있다. 13.3인치 접이식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노트북으로 무게는 1kg를 넘지 않는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화면을 완전히 펼쳐서 사용하거나 접어서 사용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도 비공개 부스에서 폴더블 노트북을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

# “디지털 전환 과감하게... 모든 역량·방식 고객에 초점”



## 권봉석 사장 기자간담회

수익을 전제로 한 성장 전략 추진 고객 소비패턴 분석, 선제적 대응 선택적 집중으로 낭비 자원 최소화 AI·빅데이터·로봇 등 지속적 투자

“디지털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동시에 고객에게 가치를 준다는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겠습니다.”

LG전자 CEO 권봉석 사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역량과 일하는 방식을 고객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수익 기반의 성장 전략 일관 추진

권 사장은 수익을 전제로 한 성장 전



LG전자 CEO 권봉석 사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LG전자의 전략 방향을 소개했다. /LG전자

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시장의 수요 감소와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등 올해 경영 환경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변화를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변

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또 고객들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며 개인화된 경험을 선호하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고객과 소비 패턴을 빠르게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등 자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디지털 전환 가속

권 사장은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디지털 전환과 같은 능동적 대응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 전환은 변화와 성장, 즉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제품 중심의 사업구조는 유지하되 변화하는 고객을 이해하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추가적인 사업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하드웨어에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LG전자가 추진할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 사례다.

LG전자는 선제적인 미래준비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준비를 위한 인재 육성도 적극적이다. 외부 인재 영입에 힘쓰고 사내 전문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프리미엄 전략 중단 없이 추진

권 사장은 수익 기반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초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등과 같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LG전자는 집안의 모든 영역에서 제품의 디자인뿐 아니라 기능과 서비스까지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고객가치를 더해주는 공간 가전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인다. 공간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고객 트렌드에 맞춘 솔루션을 제시하며 공간을 지배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무선 청소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등 국내에서 큰 인기를 거두며 새로운 가전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신가전은 해외 진출을 이어간다. LG전자는 시장과 고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거둔 신가전 성공 체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운동검사·인공햇빛·탈모관리... 기발한 제품으로 눈도장 ‘꼭’

### 삼성이 지원한 ‘C랩’ 전시공간

삼성전자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C랩’이 ‘CES 2020’을 통해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샌즈 엑스포에 마련된 스타트업 전용 전시 공간인 유레카 존을 찾아 다양한 C랩을 만나봤다.

삼성전자 사내 벤처프로그램 C랩은 삼성전자가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말 도입해, 창의적인 끼와 열정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그중 ‘C랩 인사이드’는 삼성전자 임직원 대상이고, ‘C랩 아웃사이드’ 사외 스타트업이 대상이다.

### 운동검사를 손쉽게 ‘피트’

이날 만난 C랩 아웃사이드 피트는 고객의 검사비용을 들여 병원에서만 측정 가능했던 운동검사를 누구나 언제든 쉽게 검사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검사 결과에 따른 사용자 맞춤형 운동까지 제공한다. 심폐지구력, 움직임 능력, 근력측정평가 등 3가지 운동검사를 통해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해 개인별 수준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자연광 유사 조명 생성 ‘씨니사이드’

씨니사이드는 인공 햇빛을 생성하는 창문형 조명으로 자연광과 유사한 조명을 제공한다. 한국인의 90%가 비타민 D 결핍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노화나 피부가 탈 것이라는 걱정도 없다. 건강한 자외선인 UVB 파장을 사용해 건강한 빛으로 비타민D를 채울 수 있다.



피트가 운동검사 결과에 따른 사용자 맞춤형 운동까지 제공하는 모습. /구서윤 기자

### 키보드 없이도 글씨 입력 ‘셀피타입’

셀피타입 부스에는 키보드 없이 자판을 치는 흉내를 내는 것 같은 사람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스마트폰 화면에 글자가 입력되고 있었다.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를 활용해 가상의 키보드 솔루션을 개발했다. 별도의 장비 없이 전면 카메라를 통해 입력할 수 있다.

### 탈모 걱정 없애주는 ‘비컨’

비컨은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두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두피 상태 진단 과정을 거쳐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한다. 두피 케어 및 탈모 예방 홈케어 솔루션으로 두피 상태를 진단하는 10가지 항목을 동시에 측정하는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며,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의 두피를 측정하면 두피 각질, 민감도, 머리숱, 온도, 유수분 등 데이터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샴푸 추천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 8명 영상통화 가능 ‘스무디’

스무디는 동영상 시청이 많은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 최대 8명까지 동시 대화가 가능한 그룹 영상통화 서비스를 선보였다. 언제 어디서든 영상통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음소거 모드에서 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 “鄭 리더십에 NASA서 현대車 이직

(정의선)

## 비행의 민주화... UAM 반드시 성공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인터뷰

현대차그룹 UAM 사업부 신재원 부사장

### 1989년부터 30년간 NASA 근무 “산업 경계 넘어 새 모빌리티 구축”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혁신 리더십 믿고 현대차행을 결정했습니다.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자동차 업체도 비행기를 만들어 새로운 모빌리티를 구축할 것입니다.”

신재원 현대자동차 UAM(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사업부담당 부사장은 30년간 항공 기술 분야에 전념했던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나와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그룹의 합류를 결정하는데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영향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이처럼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미래 전략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의 한 축인 UAM을 이끌고 있는 신재원 부사장을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CES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만났다.

신 부사장은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버지니아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89년 NASA에 입사해 시니어 리서치, 헤드 리서치를 거쳐 관리직으로만 24년을 있었다. 클리블랜드 글랩 리서치 센터에서 전체 항공연구 총책임자를 맡았고, 2004년부터는 워싱턴 D.C.의 NASA 본사에서 전체 항공 연구를 하는 미션 디렉터리의 부책임자로 일하다 2008년부터는 전



신재원 현대자동차 UAM(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사업부담당 부사장이 CES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체 부서의 총 책임을 맡았다.

신 부사장은 “처음에는 연구원이었지만 대부분의 경력 동안 연구 개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전세계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와 보잉과 록히드마틴 등 모든 항공기 회사는 물론 다양한 기업체와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며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UAM 사업을 완성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신 부사장은 정 수석부회장의 비전인 ‘비행의 민주화’에 공감하는 한편, 그가 맡긴 UAM 사업의 성공에 강한 확신을 보여줬다. 신 부사장은 UAM은 현대차가 CES에서 제시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의 핵심으로, PBV(목적기반모빌리티)-모빌리티환승 거점(허브)과 연계돼 끊임없는 이동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UAM을 미래 혁신사업으로 키워서 반세기 넘게 도

로에서 이어온 도전을 하늘길로 확장한다.

그는 비행의 민주화라는 용어에 대해 “엄청난 부자는 개인 비행기가 있으니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비행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을 하려면 항공사의 스케줄에 맞춰야 한다”면서 “UAM 시장이 열리면 UAM이 시스템 안에 지상 이동 수단이 항공 수단과 완벽히 연계가 되면서 수요에 따른 항공 모빌리티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AM 상용화 시점에 관해 신 부사장은 “업계에서는 2023년 시범 운영한다는 우버 계획을 표준이라고 본다”며 “다만 승객이 4~6명이 타고 조종사가 있으며 도시 일정 지점에서 공항까지 이동하는 매우 한정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부사장은 UAM의 상용화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사장은 “일부 경비행기 회사에서 낙하산을 장착한 비행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UAM도 기체 무게를 가볍게 해서 낙하산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PAV 콘셉트에 8개의 로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터가 하나 고장나도 충분히 제어되도록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체 개발을 위해서는 테스트가 필요한데 충분히 안전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기존 항법 시스템과 충돌이 되지 않는 항법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 삼성 등과 '초협력'에 다 걸었다, AI위해 사명도 바꾼다



## 박정호 사장 기자간담회

초협력 제안에 삼성전자 긍정적 반응  
지상파3사 합합친 '웨이브' 대표사례  
자회사 증시 상장추진... '종합ICT사'  
조작개편 가능성, 글로벌화와 협력강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로리스 더 프라임 립 레스토랑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SK텔레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사업 경계를 허무는 '초협력'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사명까지 바꾸는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0' 행사 기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초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간 AI 분야 협력 전격 제안한다"며 "국내에 잘

하는 플레이어들이 능력을 합치지 않으면 글로벌에 다 내주고 우리는 플레이어가 아닌 유저(이용자)가 될 판"이라고 말했다.

국내 ICT 기업의 초협력을 통해 글로벌의 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 대항하겠다는 의지다.

박정호 사장은 이를 위해 전날 있던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와의 미팅에서도

AI 분야 초협력을 제안했고, 고 사장도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우선 협력 대상자로는 삼성전자가 유력하다. 박 사장은 구체적인 협력 케이스로 냉장고에 AI 스피커 '누구'를 탑재하는 방안을 거론기도 했다.

박 사장은 "삼성과 AI 초협력에 대해서는 시장에 접근하고 싶은 방식 등을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AI 관련해

서는 서비스 능력을 합치고 브랜드나 애플리케이션은 각자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한 자유도를 가지자. 특히, IP 등에 대해 지금부터 디자인을 짜보자"고 제안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힘을 합쳐 출범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초협력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박 사장은 "초협력을 통해 웨이브라는 방패가 생기니 최근 부산에서 만난 넷플릭스의 대표인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태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정호 사장은 올해 말부터 자회사 증시 상장(IPO)을 추진하는 한편 통신사를 넘어 '종합 ICT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박 사장은 "MNO 매출을 포함한 통신 매출이 60%"라며 "매출의 40%가 유 ICT 사업에서 나오는 만큼 SK군의 기업 정체성에 걸맞는 사명 변경도 고민할 시점에 왔다. SK하이퍼커넥터와 같이 통신,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초협력을

강조한 식으로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올해는 주력인 MNO와 뉴 ICT(미디어, 보안, 커머스)를 양대 성장 엔진으로 삼는 '듀얼OS' 경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명을 변경하면서 조직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 ADT캡스, 11번가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SK텔레콤에서 사명을 변경하면서 기업공개(IPO) 작업을 올해 말 시작해 2~3년안에 걸쳐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박 사장은 "상장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과 보상 체제를 넘어서 준비하고 있다"며 "상황마다 다르지만 올해 말부터 IPO를 시작해 2~3년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회사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박 사장은 "글로벌 회사와 다른 차원의 협력을 해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했고 올해부터 제3자간 협력 분야가 많이 생기는 등 과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CES 빛낸 국내 AI 기업들

**솔트룩스** '시통합솔루션' 단독부스  
**롤루랩** 스마트거울, 10초내 피부 분석  
**디플리** 아기울음 분석... 상태안내 앱  
**에이모** 시로 이동하는 물체 자동인식

인공지능(AI) 전문업체들이 지난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챗봇,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뷰티, 육아, 자율주행 등 다양한 제품을 출품해 높은 기술력을 선보였다.

AI 분야에서 기존에는 AI 플랫폼, 챗봇 등에 주력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다방면에 AI 기술을 접목하면서 획기적인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AI 대표기업인 솔트룩스는 'AI의 통합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단독부스를 개설해 관심을 모았다.

솔트룩스는 지식 기반 심층 대화 가능한 챗봇인 '톡봇', 추론 및 데이터 변환 도구를 제공하는 '지식 그래프', 기계학습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심층 질의응답 엔진인 '심층 QA' 등 주요 제품을 전시했다.

롤루랩·아이콘 에이아이 등 기업들은 AI 뷰티 스마트거울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삼성전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출신인 롤루랩은 AI 피부 진단 스마트 거울 '루미니'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거울을 통해 얼굴 피부 상태를 스캐닝한 후 모공, 주름, 붉은 기, 유·수분, 트러블 등 항목을 10초 내 빠르게 분석해준다. AR 가이드로 피부 상태를 정밀히 표현하고, 피부 상태에 맞게 LED 마스크가 작동된다.

아이콘 에이아이(ICON.AI)도 아마존의 AI 음성 서비스인 '알렉사'가 탑재된 7인치 터치스크린을 갖춘 스마트 메이크업 미러를 선보였다. 스마트 스피커 기능을 탑재했으며, 피부 분석, A

R 메이크업, 링 LED 조명, 360도 스피커, 테이블 무드 램프, 카메라 등 기능을 갖췄다.

디플리는 아기 울음소리를 분석해 아기 상태를 알려주는 AI 기반 베이비시터 앱 'WAAH'를 개발하고, CES에서 처음 선보였다. 이 회사는 아기 울음소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와 연동 앱을 활용해 육아 일지 350개월 분량의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아이 울음소리를 탐지·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아기들의 실시간 상태를 알려준다.

AI 모델 경량화 기술을 보유한 노타는 온디바이스(On-device) 실시간 사물 및 얼굴 인식 솔루션을 선보였다.

노타는 이번 전시회에서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디바이스 상으로 실시간 구동되는 사물 및 얼굴인식 솔루션 데모를 공개했다. 특히 사물인식 모델은 인텔의 오픈비노(OpenVINO) 기술 대비 높은 압축률과 약 2배 빠른 연산속도를 구현해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모라이·에이모 등이 시물레이션 기술, AI 물체 인식 기술 등을 선보였다.

카이스트의 자율주행차 연구진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모라이는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 및 검증에 위한 고정밀 시물레이션 기술을 선보였다. 이 회사의 자율주행차 검증 기술은 정밀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과 동일한 가상의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만 가지 상황을 재현한다.

에이모는 AI로 현장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자동 인식하는 기술, 자율주행 차량이 영상, 레이더, 라이더 센서를 분석하는 3D 큐비드 자동 생성 기술을 시연했다. 이 회사는 특히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 입주한 7개 기업과 함께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CES 첫 참가... 두산의 미래상 공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트렌드 선도... 많은 고민과 실천 필요"  
두산부스서 협동로봇과 DJ 퍼포먼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8일(현지시간) 경영진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 현장을 찾았다. 박 회장은 사우스 홀에 위치한 두산 부스를 시작으로, 센트럴·노스 홀을 오가며 국내외 기업들의 부스를 둘러봤다. 박 회장은 특히 AI, 드론, 5G, 협동로봇, IoT, 모빌리티 등 두산 사업과 연관된 기술을 중심으로 최신 트렌드를 꼼꼼히 살폈다.

CES 현장을 살펴본 박 회장은 경영진에게 "우리 사업 분야에서 최신기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야 한다"며 "올해 CES에서 우리가 제시한 미래 모습을 앞당기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두산은 이번 CES에 처음으로 공식 참가해, '우리의 기술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를 만든다'는 목표로 에너



박정원 두산그룹회장(가운데)과 박지원 그룹부회장(오른쪽)이 CES2020에서 두산그룹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두산그룹

지, 건설기계, 로봇, 드론 등 각 사업분야에서 두산이 지향하는 미래상을 선보였다.

두산 부스에서는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이 DJ와 함께 사인 스피닝 퍼포먼스를 펼치며 관람객을 맞았다. 사인 스피닝은 광고판을 회전시키면서 시선을 끄는 퍼포먼스형 광고로, 특히 북미 지역에서 인기가 높으며 신종 스포츠로도 각광받고 있다. 또 '협동로봇 바리스

타'는 관람객에게 드립커피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이번 CES에서 두산은 최고혁신상을 받은 수소연료전지 드론과 5G 실시간 통신을 기반으로 한 건설현장 종합관제 솔루션 '콘셉트 엑스(Concept-X)', 두산밥캣 장비에 탑재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증강현실(AR) 작업 프로그램 등도 선보였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

## 구자은, 新기술 동향 파악 위해 CES 참관

(LS그룹 미래혁신단장)

LS그룹은 구자은 LS그룹 미래혁신단장 겸 LS엠트론 회장이 7~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을 참관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계열사 임직원 10여 명과 함께다.

구 회장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두산 등 한국 기업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의 전시관을 찾았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구 회장은 "디지털 시대에 업의 구분

이 불분명해지고 사업영역이 새롭게 재정의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를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CES에서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단순한 기술, 제품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며 "우리 LS도 이러한 솔루션 관점의 시각으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함께 동행한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구 회장은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 본사와 피보탈 랩스, 세



구자은 LS 미래혁신단장(오른쪽)이 CES 2020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LS그룹

일즈포스 등 기술력을 보유한 현지 회사들도 방문해 LS에 접목할 기술과 경영 기법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 “美쳤네”... 현대·기아차 SUV, 미국 소비자 사로잡다

텔루라이드 웃돈 주면서 기다려야  
펠리세이드 월 5000대 넘게 팔려  
신형 쏘나타하이브리드까지 흥행  
신차효과로 ‘나홀로’ 회복세 전망  
도요타·닛산 등 H브랜드 힘 못써

세계 자동차 시장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출시한 신형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펠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중형 세단 쏘나타하이브리드로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현대·기아차 경쟁력이 ‘싼 가격’이었다면 현재는 품질과 서비스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며 딜러에서 프리미엄 금액을 추가해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8일 미국 현지 딜러들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차 미국법인인 SUV인 텔루라



기아차 텔루라이드

이드, 스포티지 인기에 힘입어 전년보다 4.4% 늘어난 61만5338대를 판매했다. 특히 텔루라이드는 미국 자동차 전문지인 모터트렌드가 선정한 ‘2020 올해의 SUV’에 선정됐으며 미국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인 Kelley Blue Book(KBB닷컴)에서도 ‘베스트 바이’로 낙점될 정도

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요에 힘입어 기아차는 미국 조지아 공장 내 텔루라이드 생산능력을 기존 6만4000대에서 작년 말 8만대 수준으로 증산을 결정한 상태다.

지난해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의 판매량도 71만4대로 전년 대비 4.7% 증가

했다. 지난해 6월 미국에 첫선을 보인 펠리세이드는 총 2만8736대가 팔리며 월 5000여대를 넘어서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등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텔루라이드를 구매하려면 딜러에 따라 5000~9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은 현대차의 펠리세이드 신형 쏘나타하이브리드로 이어지고 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경우 출시 이후 도요타의 프리우스 등의 인기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텔루라이드 EX AWD의 구매를 기다리고 있는 A씨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제외하면 프리미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최근 현대·기아차가 출시한 신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비용을 지불해도 3개월 가량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기아차의 인기는 현지 완성차 브랜드는 물론 수입 브랜드에서 내놓은 경쟁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점

단 기능이 한몫하고 있다”며 “미국은 장거리 운전이 많은데 차선유지 보조와 긴급제동 보조, 스마트 크루즈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기아차 미국서 전년도 기저효과 및 펠리세이드·텔루라이드 등 대형 SUV 신차효과를 톡톡히 봤다”며 “2020년 미국 자동차 수요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현대차그룹의 경우 신차효과에 힘입어 미국시장 판매 회복세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가 신형 모델을 앞세워 미국 시장 판매량을 확대하는 반면 일본 브랜드들은 좀처럼 힘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차 판매량은 혼다만 소폭(0.2%) 증가했을 뿐 도요타, 닛산은 미국 내 성장세 둔화를 피하지 못했다. 도요타의 지난해 판매량은 238만3348대로 1.8% 감소했다. 닛산의 경우 9.9% 감소한 134만5681대에 그쳐, 현대·기아차와의 격차가 줄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KT, AI로 기지국 제어... 5G 품질 강화

‘5G 아이콘’으로 자동 최적화

KT는 5G 네트워크 최적화와 관계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5G 품질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KT는 5G 기지국 최적화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5G 아이콘(AIKON)’을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기지국을 자동 최적화했다.

‘5G 아이콘’을 통한 기지국 최적화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자동 조정 과정과 이를 통한 최적의 결과값 도출 작업으로 이뤄진다.

우선 기지국 주변 커버리지와 무선 주파수 품질, 건물 높이 등의 환경 데이터, 안테나의 기울기, 높이 데이터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기지국 설정 모델을 추출한다. 추출한 설정 값을 원격에서 적용하고 실시간 결과치를 반영한 자동적인 미세 반복 조정 작업을 통해 약 2분 내에 자동으로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해 낼 수 있다.



KT 네트워크부 직원들이 AI 기반의 5G 기지국 최적화 시스템인 ‘5G 아이콘’을 활용해 기지국 제어를 진행하고 있다. /KT

KT는 현장에 엔지니어가 출동하지 않고도 일련의 과정을 원격에서 적용 및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와 이벤트 발생 상황에서도 빠르고 효율적인 품질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KT는 올해 새해를 맞이한 서울 보신각 타종행사 현장에도 ‘5G 아이콘’을 적용해 높은 5G 소통율을 기록했다. /김나인 기자

## CES서 혁신상 받은 SSD ‘T7 터치’ 론칭

삼성전자 속도·보안 강화

삼성전자가 포터블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인 ‘T7 터치(Touch)·사진’을 글로벌 론칭한다고 9일 밝혔다. ‘CES 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그 제품이다.

T7 터치는 속도와 보안을 크게 강화한 프리미엄 외장 스토리지다. 5세대 512Gb V낸드와 초고속 인터페이스 NVMe 컨트롤러를 탑재해 외장형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대비 최대 9.5배, 전작 대비 2배 빨라졌다.

지문인식 보안기능도 탑재했다. 최대 4개까지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패



스워드 방식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편의성도 갖췄다. 256비트 AES 하드웨어암호화로

해킹 위협에서 데이터를 지킬 수 있다. 용량은 2TB, 1TB, 500GB 등 3가지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 2개다. USB 3.2 NVMe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명함 수준 작은 크기에 가벼운 무게면서도 내구성이 2m에서 떨어져도 견딜만큼 높다. 출시 일정은 21일부터 미국과 유럽을 시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소비자 가격은 용량별로 129.99달러에서 399.99달러다. /김재용 기자 juk@

## 엔씨, 리니지2M 독주 잇는다... 세계관 확장

출시 후 첫 대규모 업데이트 진행  
22일 ‘상아탑의 현자들’ 사전등록

엔씨소프트가 올해도 ‘리니지’로 탄탄한 매출 굳히기에 나선다. 새로 업데이트 될 모바일 게임 ‘리니지2M’에는 스트리밍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과 PC 연동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9일 경기 판교 R&D 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M’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실시하는 ‘상아탑의 현자들’ 업데이트 사전 등록은 이날 낮 12시에 시작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리니지2M에 향후 적용할 ‘리모트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버전의 리니지2M에서도 높은 수준의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 서비스로 모바일과 PC를 연동해 리니지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지식재산권(IP)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적용일은 미정이며, 현재 조율 중이다.



리니지2M, ‘상아탑의 현자들’ 업데이트 이미지.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로 리니지2M의 독주를 이어갈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오는 22일 진행될 ‘상아탑의 현자들’ 업데이트에서는 ▲초원, 습지, 설벽 등 환경 속성에 따라 다른 방식의 성장을 즐기는 영지 ‘오렌’ ▲신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마력이 깃든 잉크’와 새로운 무기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모을 수 있는 던전 ‘상아탑’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보스 ‘오르펜’ ▲신규 무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업데이트 사전 등록은 21일까지 진행된다. 모든 참여자에게 ‘오렌의 비밀 상자’, ‘계승자의 장비 세트’, ‘코로나클 계승자의 반지II’, ‘계승자의 코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쿠폰 번호를 지급한다. 쿠폰 입력은 업데이트 당일인 22일부터 가능하다.

업데이트 기념 출석 이벤트도 연다. 이용자는 이날부터 23일까지 게임에 접속만 하면 ‘상급 아가시는 획득권’, ‘생명의 돌’, ‘사이하의 숨결’ 등의 아이템을 매일 각 하나씩 받을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업데이트 당일 리니지2M을 즐기는 모든 이용자에게 특별 선물 ‘TJ의 얼리버드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TJ의 얼리버드 쿠폰’을 사용해 영웅 클래스 획득에 도전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올해도 ‘리니지’의 흥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리니지2M이 성장하면, 올해 엔씨소프트 또한 역대급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LGU+ “모든 등급 멤버십 포인트 무제한”

등급 신설 등 멤버십 제도 개편

LG유플러스는 올해 1일부터 자사의 멤버십 제도를 개편, 전 등급에 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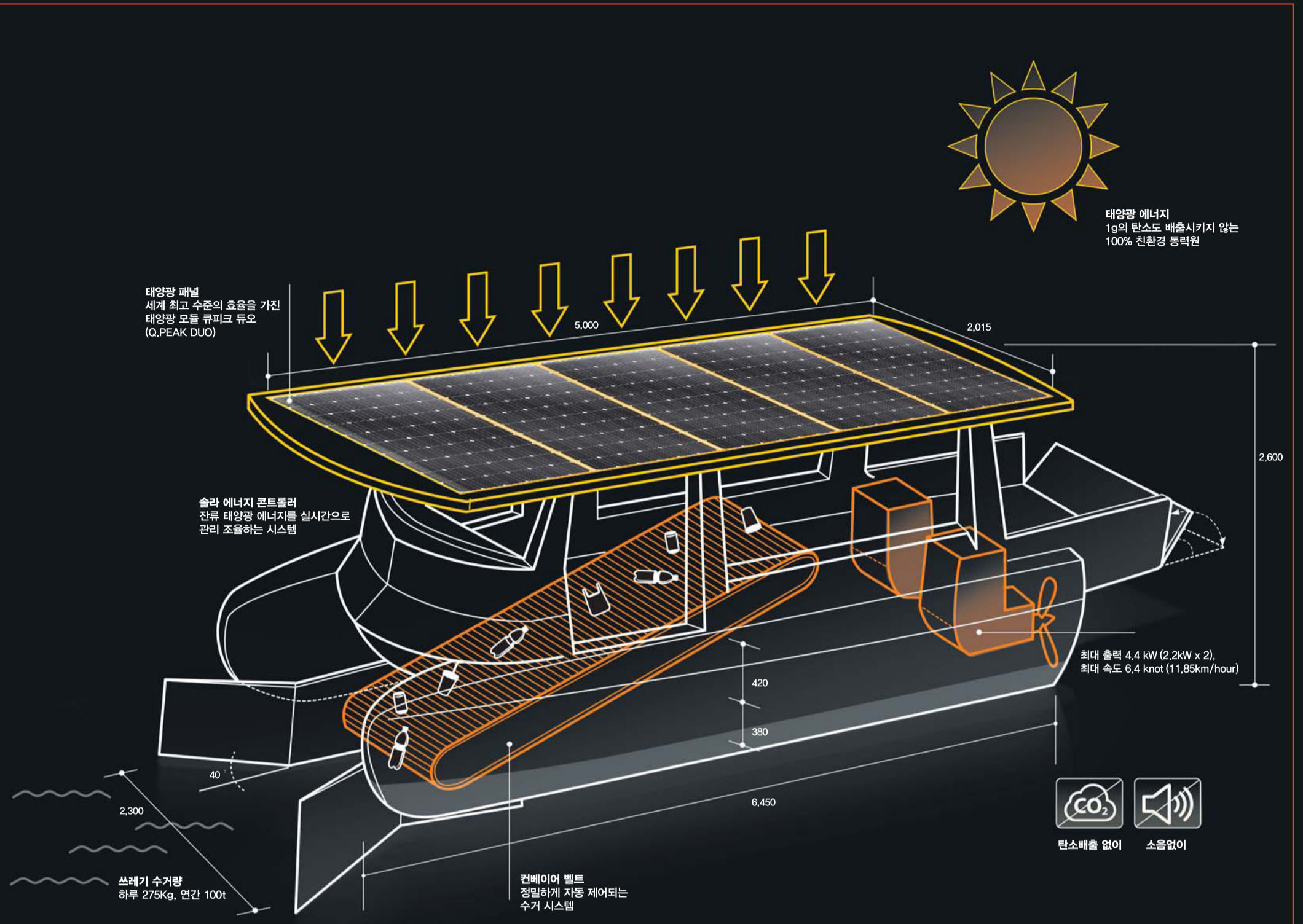
LG유플러스는 기존에 등급별로 차등 지급해오던 멤버십 포인트를 구·신 멤버십 제도와 등급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 대상으로 무제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다양한 제휴처에서

포인트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 멤버십 제도는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 인터넷 전화, IPTV, 홈IoT 등 5대 상품에 대한 연간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선정한다. 기존에는 ▲VIP+ ▲다이아몬드+ ▲골드+ ▲일반+ 등 총 4개로 나뉘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VVIP+가 추가돼 총 5개 등급으로 운영된다.

구 멤버십은 모바일 요금제 기준이었지만, 신 멤버십은 모바일 요금제를 비롯해 4개의 흡상품 사용 금액까지 기준을 확대해 멤버십 업그레이드가 쉬워진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새로운 등급 신설을 기념해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VVIP+ 고객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공식 홈페이지 및 멤버십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인 U+멤버스에서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3000명에게 GS칼텍스 5000원 상당 주유권을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한화가 기증한 솔라보트는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를 막는 마지막 보루, 메콩강 하류 베트남 빈롱 지역에서 오늘도 수상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 한화가 만든 솔라보트는 단 두 가지 동력만으로 움직입니다 환경에 대한 고민 그리고 태양에너지

지구 산소공급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연간 6,500만톤이나 되는 인류의 식량을 책임지며, 46억년간 생명의 터전이 되어온 바다.

하지만, 해마다 800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오염, 생태계파괴, 기후변화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배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아이러니 또한 우리는 지켜봐 왔습니다.

1g의 탄소배출도 없이 태양광에너지만으로 움직이며 연간 220톤의 수상쓰레기를 자동수거하는 한화 솔라보트, 지구에 조금의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지구를 돕는 방식에 대해 한화가 긴 고민 끝에 내놓은 작은 시작입니다.

UN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그렇게 46억년 간 지켜져 온 우리의 지구와 바다가 46억년 뒤 인류의 소중한 터전으로 계속해서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을 연구합니다.

# 손 “사내벤처로 혁신… 자율 점검체계로 고객신뢰 회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 금융, 飛上 2020 전략

### (4) 우리금융그룹

2020년 목표 ‘고객신뢰·혁신’  
기업투자금융 등 미래성장 강화  
사내벤처 제도로 조직혁신 추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홍유릉에서 고객신뢰와 혁신으로 1등 종합금융그룹 달성을 기원하며 참배를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은 2020년 목표를 ‘고객신뢰’와 ‘혁신’으로 잡았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되찾는 것”이라며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매사에 정성과 믿음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변화를 강요받기 전에 먼저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그룹표준 정보보호 체계 확립… “고객 신뢰 이끌 것”

우리금융의 지난해 3분기 누적순이익은 1조6657억원으로 경상기준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웠던 금융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더불어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의 인수합병(M&A)에 잇달아 성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확충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

은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국내·외 경기 침체는 장기화 되고 있으며, 오픈뱅킹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간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유망한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그룹들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손 회장은 모든 임직원의 비상한 각오를 당부하면서 우리금융의 새해 경영목표를 ‘고객신뢰와 혁신으로 1등 종합금융그룹 달성’이라고 선언했다.

7대 경영전략으로는 ▲고객 중심 영업혁신 ▲리스크관리·내부통제 혁신 ▲지속성장동력 강화 ▲사업포트폴리오 강화 ▲디지털 혁신 선도 ▲글로벌 사업 레벨업(Level Up) ▲우리투게더(Woori Together) 시너지 확대를 제시

했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은 지난해 수립한 ‘그룹표준 정보보호 자율 운영체계’와 ‘그룹사 자율 점검체계’를 고도화 할 방침이다.

그룹표준 정보보호 자율 운영체계는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에프아이에스·우리증권·우리신용정보 등 각 그룹사가 지난해 11월 수립한 고객 정보보호 표준 정책이다. 4개의 정보보호 법규(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에 기반해 각 그룹사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표준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했다.

향후 각 그룹사는 ‘PDCA(Plan-Do-Check-Act)’기법을 활용해 그룹 표준정책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PDCA기법은 수립된 그룹 정보보호 표준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그룹별 정보보호 조직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 정책은 지난해 1월 지주 출범 이후 처음으로 그룹 관점의 표준화된 정보보호 운영체계 수립 및 자율적 점검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2020년에는 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디지털·사내 벤처 강화로 신성장동력 확보

우리금융은 ‘은행 안에 은행(Bank in Bank·BIB)’ 체제로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업투자금융(CIB) 등 미래성장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운영을 시작한 BIB체제는 우리금융이 디지털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한 조직개편의 일환이다. 디지털금융그룹을 별도 조직으로 운영해 디지털 금융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했으며, 예산·인력 운영·상품 개발 등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 오픈 API 기반의 전략적

제휴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조직 내 혁신 DNA도 심는다.

우리금융은 지난 7월 그룹 차원의 사내벤처 제도인 ‘우리 어드벤처(A-D Venture)’를 도입했다. 우리 어드벤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모험심 강한 벤처집단을 의미한다. 지난해 10월 우리금융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의 운영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소규모 자발적 혁신조직인 ‘우리 어드벤처’의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의 장점인 신속한 실행력·개방형 혁신·도전하는 문화를 전 그룹사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최소요건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빠르게 고객 반응을 측정해 다음 아이디어에 반영하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사업에 대한 리스크도 최소화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최근 업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의 가속화로 금융기관도 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사내벤처 제도 운영으로 조직 내 혁신문화를 안착시키고, 전 그룹사 임직원의 잠재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기보, 소·부·장 기업 3000억대 특례 보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특성에 맞춰 R&D·사업화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자립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Track1)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Track2)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업종 영위기업 중 테크·브리지(Tech-Bridge) 활용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 기업으로, 기업별 특성에 맞춰 R&D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기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올리고, 보증료는 최대 0.4%포인트 감면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해 소부장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자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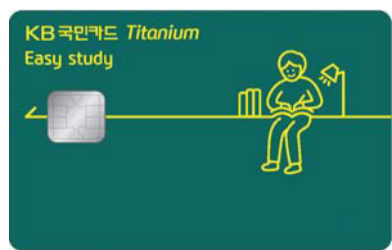
한편,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피해 기업 및 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 카드 잘 사용하면 학원 강의 월 7만원 할인

### KB국민카드 이지 스터디 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학원·온라인 강의 등 교육과 자기계발 관련 혜택을 담은 교육 특화 상품 ‘KB국민 이지 스터디(Easy study) 티타늄 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지난해 선보인 ▲KB국민 이지픽 카드 ▲KB국민 이지온 카드 ▲KB국민 이지 플라이 티타늄 카드 ▲KB국민 이지 오토 티타늄 카드에 이은 ‘이지카드’ 시리즈 후속 상품으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학원·온라인 강의에서 월 최대 7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지스터디 카드 /KB국민카드

학원 업종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고, 전월 이용 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만원 ▲1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4만원까지 결제금액의 3%가 할인된다.

/홍민영 기자

## 신한금융그룹-美 KKR, 2억 달러 전용펀드 조성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

# “맞춤형 펀드로 글로벌 대체투자 역량 강화”

### 펀드 운용 단계별로 양사 합의 대체투자 외 다양한 협업 추진

신한금융그룹은 9일 글로벌 대체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운용사인 미국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2억 달러 규모의 신한금융그룹 전용 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KKR은 1976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투자회사다. 전 세계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약 1947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4개 대륙 16개 국가에 21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신한금융과 KKR은 지난 2018년 9월 글로벌 대체투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조성한 펀드는 KKR이 보유한 다양한 글로벌 투자 상품에 양사가 상호 협의한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투자하며, 신한금융만을 위한 단독 맞춤형(Tailor-Made) 펀드이다.



지난 2018년 9월 21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오른쪽)과 미국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조셉 배(Joseph Bea) 공동대표가 글로벌 대체투자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특히 이 펀드는 일반적인 투자 방식과 달리 자산배분 및 투자 결정 등 펀드 운용 단계별로 양사의 협의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은 KKR의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전 과정에 참여해 KKR의 글로벌 투자 경험과 역량을 직접적으로 이전(Knowledge Transfer)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신한금융은 첫번째 맞춤형 펀드의 포

트폴리오로 KKR이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모펀드(PEF) 분야를 선정했다. 신한대체투자운용을 통해 은행, 금투, 생명 및 오렌지라이프가 공동 참여하는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런칭했다.

두번째 포트폴리오는 안정적 투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인프라

부문을 선정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SH수협은행, 내일 오전 1~5시 금융거래 중단

Sh수협은행이 오는 11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한다.

수협은행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작업에 따라 오는 11일 새벽 1시부터 5시까

지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텔레뱅킹, 자동화기기 등 모든 금융서비스가 중단된다고 9일 밝혔다.

단, 신용카드 승인(체크카드 불가),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한 사고신고(카

드, 통장, 자기앞수표 등)는 가능하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을 거래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운영 안정성이 강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작업을 완료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증권 IB 강화위해 PF-NCR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싱〉 〈영업용순자본비율〉

## 나재철 금투협회장 신년간담회

PF규제완화 등 정부 건의 확대  
IB역량 강화 NCR 등 제도개선  
IFA·직판 등 판매채널 다변화  
실제 수익 때 펀드과세 개편도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0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나재철 금투협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 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 자본 대비 100%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금융(IB)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의 불만이 커

지는 가운데 나 회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나 회장은 “정부의 PF 규제는 결국 증권사 투자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분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온 것”이라며 “증권업계는 이미 지난해 중소·혁신기업에 대해 21조4000억원의 자

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에 증권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업권별로 중점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증권업계의 IB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레버리지 비율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회장은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NCR·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나 회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관련 입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외화증권 브로커리지 업무의 효율성과 제도 등을 점진·개선해 브로커리지 업무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산운용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외화 표시 머니마켓펀드(MMF)와 기업성장

투자기구(BDC) 제도화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또 독립투자자문업(IFA) 확대가 펀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완전판매 이슈의 해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IFA·직판·온라인 등 판매채널 다변화도 병행할 것”이라면서 “특히 IFA는 금투업계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전문성 갖고 회사 만들어서 역할을 해주면 은행도 상품판매에 수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방안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하고, 금융투자 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 등이 주요 과제다.

특히 펀드과세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별로 ‘투자한 전체 펀드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서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나 회장은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의 자산이 자본시장을 통해 증식’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회원사들의 자율규제를 선제적으로 바꾸고 투자자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 회장은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 지침 등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장치 표준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회원사의 내부통제지원을 위해 균형 잡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회 테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TF는 1월 중 마무리하고 2월 중순에 결과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현재 금투협회 내부는 조직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나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혁신 TF를 구성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최고 24.69대 1

전 주택형 1순위 청약 마감  
6725명 몰려 평균 8.64대 1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건보주택이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동양건설산업

올해 첫 분양단지로서 관심을 모았던 동양건설산업과 라인건설의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가 검단신도시 역대 최고 청약건수와 최고 24.69대 1, 평균 8.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과 라인건설이 검단신도시 AA2블록에 분양하는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총 768가구(특별공급 청약분 354가구 제외) 모집에 6725명이 몰려 8.64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단일면적,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된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A타입이 333가구 모집에 4265명이 청약해 기타지역 최고 경쟁률 24.69대 1을 기록했고, B타입도 기타지역 최고

경쟁률 10.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는 오는 15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8~30일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검단신도시 AA2블록에 짓는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1122가구 규모다. 단지는 2024년 개통 예정된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이 620m 거리에 있고, 영어마을과 유·초·중·고교가 바로 접해 있다.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247만원으로 계약금은 10%(5%+5% 분납)며, 중도금(60%) 대출은 이자후불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연우 기자 ywj964@

## LH, 고양 삼성리츠 우선주 일반 공모

총발행 560만주의 30% 168만주  
목표수익 연 5.2% 비상장 우선주



블록형 단독주택 ‘삼성자이더빌리지’ 조감도.

LH는 국민 누구나 투자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우선주에 대한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9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모하는 주식은 LH가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고양삼성자이더빌리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고양삼성리츠’) 총발행주식 560만주의 30%인 168만주(84억원)다.

목표수익 연 5.2%를 제공하는 비상장 우선주이며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매입확약 등 신용이 보장된 구조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공모대상인 고양삼성리츠는 지난 2018년 GS건설과 케이프투자증권 컨소시엄이 민간공모사업자로 선정돼 고양삼성택지개발사업지구내 오금동 일

원에서 블록형 단독주택 ‘삼성자이더빌리지(전용 84㎡, 432가구)’를 건설하고 있다.

공모 일정은 오는 10일 청약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15~17일 청약접수, 21일에 주식배정 결과를 공고하며, 자세한 내용은 10일 이후 ㈜케이프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H는 ‘이번 고양삼성리츠 우선주 일반공모 외에도 지속적으로 공모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 내달부터 한국감정원서 주택청약 접수

주택법 개정안 법제사법위 통과

다음달부터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거쳐 정부 이송(7일),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고시(의결 후 7일)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 등과 관련 절차를 단축해 가급적 시행일을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 발의가 지난해 5월에 이뤄진 데다 그마저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했던 청약업무 이관 시기를 올해 2월로 연기하기도 했다.

여야 대치 속에 지난해 초 국토교통위원회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한 후에도 한 달이 넘도록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연초 분양을 앞둔 8만여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파행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

도 나왔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정상 가동이 가능해졌다.

이달 하순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예정대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모의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 순위 확인 등의 금융업무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지연됐지만 개인정보 이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만큼 감정원이 2월부터 청약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비대면계좌 개설하면 코스피 주식 쏜다

KTB투자증권, 새해 첫 이벤트  
KOSPI 200 국내주식 1주 증정

KTB투자증권은 2020년 첫 이벤트로 3월 말까지 비대면계좌를 개설한 신규고객과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코스피 200(KOSPI200) 주식 1주를 모두에게 증정한다. 증정하는 종목은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 종목 중 하나다.

최초 신규로 비대면주식계좌를 개설하는 고객과 휴면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빙고스마트’를 검색해 MTS(모바

일 트레이딩 서비스)를 설치하면 비대면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계좌 개설 후 이벤트 신청이 가능하며,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모두가 우량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KTB스마트클럽’ 가입고객은 신용대출 이자율 연 3.99%(최장 3년), 온라인 주식위탁수수료 1년간 면제(유관기관 제비용 제외), 전문가 주식추천 서비스, 세무상담, 상호물품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손영지 기자



'HDC그룹 미래전략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C그룹

# “건설서 모빌리티그룹 대변신 새로운 길, 새 시각으로 도약”

정몽규 HDC회장, 미래전략 워크숍

“불확실성 속, 자신감 가져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훈련을 하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HDC그룹 정몽규 회장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HDC그룹 미래전략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새해에는 미국·이란 문제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말 미래에셋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성공하면서

기존 건설 중심의 기업에서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정 회장은 각 계열사 대표이사 등을 향해 아시아나항공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도약을 역설했다.

9일 HDC그룹에 따르면 이번 미래전략 워크숍은 정몽규 HDC 회장,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 부회장, 유병규 HDC 사장,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등을 비롯해 13개 계열사 대표이사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이형기 아시아나항공 미래혁신준비단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HDC그룹은 각사별 사업전략을 심도 있게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일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이사가 사업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형기 아시아나항공 미래혁신준비단장이 인수 진행현황에 대한 주요 이슈를 발표하고, 각 대표들이 그룹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계열사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튿날 열린 마지막 세션에서도 HDC그룹의 계열사별 2020년 핵심 현안, 재무건전성 확보, 계열사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생존 전략 등과 관련해 대표이사과 재무책임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은행권 키코배상 고심... “선례될까 두려워”

금감원, 불안전판매 배상책임 인정 기업 손실액의 15~41% 배상 결정

과거 피해기업 147곳 자율조정 추진 배상액 2000억 규모 '후폭풍' 예상

#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손해를 본 기업 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여부가 내달 초 판가름 난다. 현재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중 한 곳을 제외한 5개 은행은 모두 조정안 수락여부 시기를 늦춘 데 반해 피해기업 4곳 중 3곳은 이미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피해기업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가 피해기업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불안전판매에 따라 손해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 6곳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5개(신한·우리·산업·대구·씨티) 은행이 조정안 수락여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안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달 20일 양측에 보내진 조정결정서는 접수 후 20일 이내 수용, 불수용, 연장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5개 은행이 연장을 신청한 것.

은행권 관계자는 “법률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위해 연장하게 됐다”며

<키코 분쟁조정대상 기업 손실액 현황>

업체명	거래은행	손실액
일성하이스코	산한, 산업, 우리, 씨티, 대구, 은행	786
남화통산	신한은행	32
원글로벌미디어	신한은행	200
재영솔루션	신한, KEB하나, 우리, 은행 등	670

/자료=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은행별 배상액 및 수락 여부>

구분	배상액(억원)	수락여부
신한은행	150	연장
우리은행	42	연장
산업은행	28	연장
하나은행	18	수락
대구은행	11	연장
씨티은행	6	연장

/자료=금융감독원

“당장 4개 기업에 배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향후 추가적인 피해기업 배상까지 합하면 배상규모가 상당할 수 있어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은 조정안에 따라 과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 147곳에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147개 기업의 피해액은 약 1조원으로, 분조위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은행권의 배상총액은 약 2000억원 규모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조정안을 수락한 곳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단순히 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 기업과 고통 분

담을 통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은행 참여가 다른 은행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배상하겠다고 나서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고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피해기업은 이미 4곳 중 3곳이 조정안을 수락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 중 3곳은 수락했고, 1곳은 이사회를 열어 조만간 수락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키코 공대위는 피해기업에 대상으로 배상금 수령, 은행보유 보증채권 소각, 피해기업과 기업인의 신용회복, 금융지원 요구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결국 해당 은행의 수락여부에 따라 배상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분쟁조정이 10년간 기다려온 키코 피해기업에게 희망고문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조정안 연장신청을 받아 들여 결정 일자를 30일 늦춘다. 은행들의 키코 분쟁 조정안 수락여부는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올 3000가구 공급... 불황극복 최선”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주택시장이 내수경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규제에도 주택 업계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는 수도권 등 전국에 주택 3000여가구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택업계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주택업계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주택건설 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 회장의 중책을 맡다 보니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주택건설협회 12대 회장에 선출된 박 회장은 전라남도 영광 출신으로 호남대 대학원에서 토목환경공학 석·박사를 받았다. 2003년부터 영무건설을 이끌었으며 2014~2016년 주건협 중앙회 감사와 2017~2019년 주건협 광주전남도회장을 역임했다.

박 회장은 끝으로 “건설 연관산업을 비롯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많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은 만큼 주택시장이 냉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이어진 자리에서 주택업계 현황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박광규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 상무이사에 따르면 ▲하차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이 골자다.

/정연우 기자

# “보험시장, 소비자중심 전환 신뢰 회복해야”

김병욱 의원, 보험산업 발전 세미나

최근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보여온 보험대리점이 불안전판매를 줄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 보험대리점협회 자율규제 기관 역할 강화 등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성장성, 수익성은 악화되는 반면 보험 민원은 금융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보험사 중심인 보험시장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온 보험대리점이 그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이루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판매채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희주 기자

다”며 “앞으로도 보험산업 발전과 보험 소비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힘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보험산업 현황 및 대리점의 기여도’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손성동 동서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겸임교수는 “보험대리점의 불안전판매와 수수료 문제에 초점을 둔 비판적 시선에 가려 비전속채널의 장점을 살려 보험사와 윈-윈(win-win)하고,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김희주 기자 hj89@

# 설경 아름다운 ‘몽·블·엔’ 항공권 특가

(몽골·블라디보스토크·엔지)

에어부산, 16일까지 프로모션

에어부산이 겨울을 맞아 설경이 아름다운 여행지의 항공권을 특가 판매한다. 에어부산은 겨울에 방문하면 더욱 아름다운 도시인 ‘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엔지’ 노선에 특가 운임을 적용해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부산-울란바토르 ▲부산-블라

디보스토크 ▲부산-엔지 노선 대상으로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특가 항공권은 1인 편도 총액 기준 ▲부산-울란바토르 15만9900원 ▲부산-블라디보스토크 13만9900원 ▲부산-엔지 11만9900원부터다. 울란바토르, 엔지 노선의 탑승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며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오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 탑승 가능하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경량다운은 지센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2013년 9월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HOUSE OF SHARING  
일본군위안부지원사업·국제평화인문센터

지센 전국 매장 전화번호 \*(직)직영점 (L)롯데마트 (H)홈플러스 (N)뉴코아 (NC)엔씨백화점 (LM)롯데몰

위비스 온라인몰 [www.wivisml.com](http://www.wivisml.com) 지센 공식홈페이지 [www.zishen.com](http://www.zishen.com)

<b>경기도</b> 경기광주상설 031-731-1412 성남태평 031-623-5999 고양터미널(L) 031-936-3609 구리 031-567-1021 김포(LM) 02-6116-5507 김포장기 031-985-7100 동두천중앙 031-858-6848 동수원(N) 031-222-6446 문산 031-233-3783 부천원풍(직) 031-952-0310 병점 031-222-6446 부천상동(H) 032-327-0015 부천원풍(직) 070-8874-2162 산본(LM) 031-8033-1267 삼패상설 031-521-3845	<b>충청도</b> 양평 031-772-1719 역곡 032-342-7063 송우리상설 031-541-4601 수원남문 031-243-9481 수원조원 031-243-6105 수원탑동 031-8001-7270 수원터미널(NC) 031-8065-3822 시화 031-498-3933 시흥신천 031-311-3058 시흥신천상설 070-8867-5989 안산(N) 031-413-3252 안산(직) 031-411-4840 안양평촌(N) 031-675-2340 안양중앙상설 031-382-7297 분당(2001) 031-441-4840 안양평촌(N) 031-8033-1267 안중 031-380-1376 안성 031-683-9550	<b>서울특별시</b> 문정 02-401-6211 강서(H) 02-2668-8577 개봉 02-2060-3648 광명(직) 02-2611-3048 의왕(L) 031-421-5273 의정부(H) 031-851-9351 의정부중앙 031-840-5454 이천부발상설 031-634-1081 인덕원 031-423-4108 일산덕이 02-777-1125 일죽상설 031-413-7354 죽전 031-405-5201 안산성포(L) 031-413-3252 안양중앙(직) 031-243-4824 평택 031-652-1540 하남 031-794-0876 화성남양 031-356-2294 화정(L) 031-970-7708 의정부 02-409-4365 의정부(직) 02-971-5339	<b>인천광역시</b> 문정 02-444-3274 사당 02-584-8549 삼선교 02-744-0782 상계(직) 02-930-6842 상도 02-812-0144 상봉 02-493-8926 서울금호 02-2237-5647 서울대(직) 02-871-9255 성수상설 02-461-9997 신촌(직) 02-461-8961 송파(L) 02-972-7858 당심리 02-2212-0038 대림 02-835-8707 도봉상설(직) 02-954-7751 동대문 02-741-9413 둔촌(직) 02-474-7717 마리오아울렛 02-954-7751 동대문 02-741-9413 마천 02-409-4365 이수점 02-532-3326	<b>대전광역시</b> 대전북부 041-904-6399 대전비래 042-621-7100 대전유성(H) 042-822-5926 신탄진 042-934-9523 청주남문(직) 043-224-5028 군산나운 043-217-6680 청주내수 044-864-9926 계룡상설 041-733-4547 논산 041-936-3862 보령 041-667-0736 세종 044-864-9926 예산내포상설 041-331-3553 온양 041-543-9723 조치원상설(직) 042-888-9522 진천 043-533-2557 천안 041-908-4656	<b>전라도</b> 전안모다아울렛 061-287-0580 천안방용 041-572-0668 청원 043-287-8979 여수여천 061-683-7732 영광 061-352-4040 완도 041-554-1310 익산영동 063-833-4446 익산중앙 063-856-8810 익산팔봉 063-834-7550 전주(S) 063-231-3355 전주동산 063-241-0632 전주서신(직) 063-272-6028 전주송천 063-241-0632 전주인후 063-272-6255 전주인후 063-246-8284 전주평화 063-222-0017 정읍 063-537-2200	<b>광주광역시</b> 광주신가 062-956-7847 광주영주 062-400-0122 광주월곡 062-955-8845 광주첨단(직) 062-974-0032 경산(직) 053-812-9200 경주 054-777-2317 경주모다아울렛 054-620-0110 구미 054-457-5294 구미봉곡 055-320-8250 구미봉곡상설 054-455-9922 구미신평(L) 054-463-6190 구미인동 054-473-2277 복상 054-975-1097 상주중앙 055-231-5507 밀양 054-857-7098 영주 054-632-9282	<b>영천</b> 054-333-1771 <b>포항</b> 054-221-9939 <b>포항중앙</b> 054-249-9987 <b>포항죽도</b> 054-252-4266 <b>포항학산</b> 054-253-8254 <b>포항중해</b> 054-262-4945 <b>하양</b> 053-857-9799 <b>거제고현</b> 055-636-3793 <b>거제옥포</b> 055-687-8688 <b>거창중앙</b> 055-944-6989 <b>김해(H)</b> 055-320-8250 <b>김해외동</b> 055-312-7464 <b>김해중앙</b> 055-332-3605 <b>남해점</b> 055-864-6665 <b>마산내서</b> 055-231-5507 <b>밀양</b> 055-356-8575 <b>서김해상설</b> 055-324-0089	<b>부산광역시</b> 대구신암 053-243-8808 대구엑스코(NC) 053-662-9203 대구용산(H) 054-249-9987 창녕 055-532-8089 창원대동 070-4107-8500 창원중앙 053-254-8883 창원합성(직) 055-296-7752 통영무전(L) 055-644-1900 통영항남 055-646-2221 <b>대구광역시</b> 가창상설 053-766-7715 대구감삼 053-572-6633 대구대신 053-553-9223 대구만촌 053-743-1340 대구봉무(직) 053-986-1166 대구상인(직) 053-639-7752 대구서부(직) 053-623-0631 대구시지(직) 053-792-7752	<b>부산대형</b> 051-909-9588 <b>부산두실</b> 051-517-0025 <b>부산사상(직)</b> 051-311-9106 <b>부산서동</b> 051-527-0838 <b>부산서면</b> 051-803-5770 <b>부산영도</b> 051-415-5507 <b>부산용호</b> 051-628-8644 <b>부산하단</b> 051-208-7789 <b>신묘라</b> 051-325-4675 <b>연산(직)</b> 051-851-8181 <b>장림</b> 051-266-8873 <b>지스가야(H)</b> 051-892-7111 <b>해운대(NC)</b> 051-709-5787 <b>화명(직)</b> 051-338-0782 <b>부산달동</b> 070-7543-2667 <b>울산상설</b> 052-263-3888 <b>울산달동</b> 052-221-1780	<b>울산신정</b> 052-269-4455 <b>울산중구(H)</b> 052-298-2366 <b>제주도</b> 서귀포 064-732-8662 제주연동 064-746-2120 제주지하 064-727-0034
---	--	---	--	---	--	--	---	--	---	---

# 유명브랜드 모아 대폭할인...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 뜬다

(아울렛보다 상품 할인이 높은 상점)

## 2020 패션 키워드

### KEY 매장에 몰리는 고객

아울렛과 달리 이월상품 직접 판매 2000년대 초 美 백화점서 첫 도입 롯데, 오픈 3년만에 38개점 확보 신세계, 패션의 리빙브랜드도 전개 현대, '오프웍스' 목표비 130%매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에 접어들었지만, 유명 브랜드 상품은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이에 백화점 3사 롯데, 신세계, 현대는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Off Price Store)' 운영 강화에 나섰다.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기존 가격에서 대폭 할인해 판매하는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를 불황을 이겨낼 신사업모델로 적극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등장한 오프라인 유통 모델이다. 해석 그대로 기존의 가격을 벗어난 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렛과는 달리 업체에서 유명 브랜드의 이월상품을 대량 매입하고 재고관리에

서 판매까지 직접 운영한다.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는 2000년대 초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미국 백화점에서 도입한 매장이다. 현재 미국 내에는 3000여 개가 넘는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백화점들이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를 개장하고 있으며 시세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롯데는 2015년 12월 평촌점에 '탑스(TOPS: The Off Price Store)'를 첫 선보인 이후 오픈 3년만에 38개점(백화점 20개, 아울렛 18개)을 확보하며 시장을 선점했다.

2017년 전년 대비 2배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을 거뒀으며, 2018년에도 80% 이상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롯데는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에 리빙이 결합된 '탑스 매장'을 오픈하며 라이프스타일 샵으로도 한번 도약했다.

신세계는 2017년 스타필드 고양 1층에 '팩토리스토어' 1호점을 오픈했다. 이후 스타필드 센텀과 사이먼파주, 강남점 등을 추가로 오픈해 현재 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전개하고 있는 분더샵, 델라라나, 무스너를 등 패션브랜드

외에 까사미아, 마리메꼬 등 리빙 브랜드까지 함께 만날 수 있다. 미국 대형 유통사들이 운영하는 오프 프라이스 매장 방식을 따르면서 잘 정돈된 매장 보다는 다양한 상품과 할인폭이 큰 재고를 많이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대규모 팩토리형 매장인데다 70~90%까지 할인폭이 커 소비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9월 현대시티 아울렛 동대문점에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인 '오프웍스' 1호점을 개장했다.

오프웍스는 월 평균 4000~5000명의 고객들이 방문하며, 목표 대비 130%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올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과 남양주점 등에 오프웍스 신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가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집객시키려면 차별화된 상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아울렛 광고점 탑스

/롯데쇼핑



팩토리스토어

/신세계백화점



오프웍스

/현대백화점그룹

## KCC글라스, 친환경 PVC바닥재 리뉴얼

신규 디자인 대폭 추가... 총 20가지

KCC글라스는 가정용 PVC 바닥재 'KCC숲 블루(2.0mm)'와 'KCC숲 옥(2.2mm)' 리뉴얼 제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리뉴얼된 KCC숲 옥은 신규 디자인을 대폭 추가, 총 20가지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트렌디한 우드 패턴과 거친 느낌의 콘크리트, 아름다운 천연 대리석과 텍스타일 등 소비자 기호에 맞게 공간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 패턴을 마련했다.

특히 신규 디자인 중 하나인 '피에트라 화이트'는 뉴트럴 톤의 마블이 돋보이는 자연스러운 대리석 무늬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드

패턴 역시 백색도를 개선해 기존보다 더욱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을 살렸고, 다양한 사이즈의 디자인으로 원목의 자연스러운 무늬를 더욱 풍부하게 구현했다.

KCC숲 블루는 밝은 계열부터 어두운 계열까지 총 5종의 우드 패턴 제품이 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중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실내 어느 공간이든 멋스러운 인테리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소형 주거 공간에도 부담 없이 시공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다. 또한 이번 리뉴얼로 신규 추가된 디자인들에는 무늬와 엠보싱을 일치시켜 천연 소재 표면의 질감과 특성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동조 엠보스' 기술이 적용됐다.

KCC숲 블루와 옥은 환경표지인증, HB마크 최우수 등급 등 국내 주요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물류플랫폼 #배송자동화 #라스트마일 효율화

현대경제연구 로지스틱스 4.0시대 특징 유통물류 선도기업 중심... 변화 가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활발해질 것" '물류+α' 영역 선점, M&A 등 절실

물류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로지스틱스(Logistics) 4.0'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배송 솔루션 제공 역량 강화, 업종을 초월한 서비스, '물류+α' 영역 선점, 필요 기술 확보 등을 위한 M&A 또는 제휴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조언이다.

'로지스틱스 4.0'이란 물류로봇, 자율운전 등에 의한 인력 효율화와 전체 공급체인의 물류 기능 표준화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으로 '사람 개입'이 불필요한 완전자동화를 실현하는 것을 인력효율화, 산업 표준화에 의해 조달→생산→택배까지 공급체인 전체가 연결되면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최적의 물류 프로세스를 공급하는 것을 표준화라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펴낸 '로지스틱스 4.0시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관련 시대에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로봇, 자율주행 등 게임 체인징 기술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히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유통물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물류 플랫폼 구축 ▲물류센터 등 건물내 배송 자동화 ▲라스트 마일 배송 효율화 등 3가지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련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

물류 혁신의 진화 Logistics 4.0			
Logistics 1.0 (19세기 후반~)	Logistics 2.0 (60년대~)	Logistics 3.0 (80년대~)	Logistics 4.0 (현재~)
수송의 기계화	하역의 기계화	물류관리의 시스템화	IoT 진화로 인력절감,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트럭, 철도에 의한 육상 수송의 고속화, 대용량화</li> <li>선박 보급에 의한 해상수송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창고, 자동분류기 등의 실용화</li> <li>컨테이너화에 의한 해운-육운의 일관수송 실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MS, TMS 등 물류 관리시스템</li> <li>통관정보시스템으로 통관과 수송절차의 전자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고로봇, 자율운행 기기 등 보급에 의한 인력효율화</li> <li>전체 공급체인의 물류 기능 표준화</li> </ul>
*WMS= 창고 관리 시스템, TMS= 수송 관리 시스템			자료/물랜드버거

도 곳곳에서 분주하게 벌어지고 있다.

마스크는 IBM과 협력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제 무역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DHL은 독일내뿐만 아니라 독일~유럽구간의 화물포워더 플랫폼인 'CILLOX'를 이미 론칭한 바 있다. 'CILLOX'는 송하인과 운송업자간 운송 계약 체결, 요금산정, 상품 추적 가능한 플랫폼을 말한다. 페덱스는 온라인 쇼핑 중소화주용 물류서비스 플랫폼인 '패택스 풀필먼트'를 개시했다.

아마존은 주문이행프로세스의 핵심 시설인 물류센터 자동화를 선도하고 있다. 온라인 식료품 유통업체인 오카도는 로봇을 활용한 차세대 유통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 대형병원이나 요양시설, 호텔, 공항 등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등에서선 문서나 물건을 옮기는데 옥내용 배송 로봇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초연결화로 특징지어지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성숙될 수록 제품, 시장, 공급사슬, 운영

기술 등 전반에 걸쳐 물류비즈니스에 대한 혁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물류 비즈니스의 기반인 디지털 플랫폼, 운송수단, 운영기술을 융합한 솔루션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특정업체 또는 업종에 체화된 수직적 서비스 역량 확보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복수 업체, 나아가 업종과 무관한 수평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또 물류 비즈니스도 전통적인 물류 보관 및 배송서비스에 더해 조달대행, 수요예측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품의 보수 유지, 조립 등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3D 프린팅을 통한 수요업체의 보수유지부품 생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로봇, 자동화기기, AI, 블록체인, 자율주행차량 등이 물류 변혁을 위한 핵심기술로 M&A나 제휴를 통해 이들 관련 기술이나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김승호 기자

## 교원, '엄마 취저' 온라인플랫폼 공개

(취향저격)

교원그룹이 20~40대 '엄마'들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마켓85(Market85)'를 선보였다.

교원그룹은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한 첫 실험으로 온라인 플랫폼 '마켓85'를 론칭하고 기존 구문학습

및 빨간편, 웰스 등 각 브랜드와 시너지를 극대화해나간다고 9일 밝혔다.

'마켓85'는 자녀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키즈리빙 브랜드 '아이나래'를 우선 내놨다. 아이나래는 마켓85에서 기획한 자체 브랜드로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창의력과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보인다. 나이에 맞춰 총 4단계로 분류하고, 나이별 필요한 아이들을 선별해 패키지로 구성했다.

/김승호 기자



# 배터리 재활용 뛰어든 GS건설, 규제특구에 첫 투자

(포항)

중기부, GS건설 투자협약식 개최  
2022년까지 영일만 산업단지에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시설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투자협약식을 끝낸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합뉴스

차세대 배터리인 2차 전지 재활용 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경북 포항시가 GS건설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한 첫 사례다.

포항시는 이번 투자금으로 오는 2022년까지 포항시 영일만 산업단지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이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투자는 경북과 GS건설은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항에 생산거점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

고,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에 2차 전지 재활용 제조시설 확충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한다. 생산공장을 위한 3만6000평 부지 토지매입에 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에 300억원, 기계설비 구축에 520억원이 투입된다.

경북은 지난해 7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됐다. 지금까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친환경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특구지정을 계기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경북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수집→보관→해체→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체계를 구축해 혁신기업 중심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전기차 사용 후 나온 배터리를 전기차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하는 배터리로 재사용하는 실증사업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를 분해해 니켈·코발트·망간 등 희귀

금속을 추출하기 위한 재활용 실증사업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을 진단해 재사용 및 재활용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사업 등이다.

GS건설의 이번 투자는 중소기업만으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워 한계가 있었던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규모 기계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이번 투자가 향후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그동안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터리 재활용 시설 확충 후, 현재 특구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에코프로GEM 등 약 5개의 중소기업은 사용 후 배터리 수집·해체·광물질 분쇄 등 기초작업을 맡고, GS건설 등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모은 광물질(희토류)의 분류 및 정제를 담당한다.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 성장이 기대되는 2차 전

지 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경북은 2022년 이후에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전체 시장의 약 5.7%인 연간 8000억원의 직·간접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시설이 완공되는 2022년 1099개일 전망이며, 2024년에는 연간 약 1만개, 2031년에는 연간 약 10만개, 2040년에는 연간 약 69만개까지 늘 것으로 예측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약 179억원 규모였던 사용 후 배터리 시장규모는 오는 2050년 약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올해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신기술 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제2벤처붐을 확산해 벤처 4대 강국 진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올해는 규제자유특구 연계형 특구 제도를 시범 도입해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한민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 2년간 방탄복 납기 지체... 조달체계 개선을

"전문기업 아닌 일반기업서 납품  
성능통과 제때 못해 벌어진 일"

최근들어 우리 군의 군수품 조달방식이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군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생산기업의 활성화도 그렇다고 군수품의 질적 양적 개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군 장병의 목숨을 지켜줄 다목적방탄복 사업이 2년 연속 납기지체로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군 당국도 내부적인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올해 다목적방탄복 납품업체는 S사와 W사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납기가 완료됐어야 했다"면서 "W사는 납기일을 지켰지만, 납품량의 다수를 맡은 S사는 아직도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사업청도 입찰 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E사처럼 납기지체가 생길 경우 업체와 군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에게 희망납품수량의 우선권을 주는 조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목적방탄복의 다수 납품사가 납기지체가 된 이유에 대해서 관련 업체는 "조달업체의 자격충족 수준이 낮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군복 및 군장구류 등 생산자격을 주어지는 조건도 낮다보니, 기술과 노하우가 부족한 업체도 입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업체가 방편성능 통과를 제때 통과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기술품질원은 성능 테스트의 결과는 알려 줄 수 없으나 12월 중순에 성능검사를 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현행 군수품 조달체계는 입찰 자격을 완화해, 신규업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요군과 업체의 유착을 막는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사업참여 자격이 원활한 군수품 조달과 품질향상으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업체들의 사업참여 조건이 완화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최저가 입찰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3형방탄복, 특수작전칼, 응급조치킷 등은 생산업체 또는 전문수입업체가 아닌, 군수품무역업을 갖춘 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구매조달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구매조달은, 국내업체의 직접생산 여부와 상관없이 군이 정한 구매요구에 맞춘 물건을 업체를 통해 구매대행을 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정품이 아닌 저가복제품이 군에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인사 나누는 추미애 장관과 대법원장 장과 인사 나누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과 인사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與 “공정한 인사기용” vs 野 “사화 숙청”

윤석열 좌천에 여야반응 ‘극과 극’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가 대거 이동한 것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과정에서의 검찰 태도를 훈계하며 “공정하고 균형잡힌 인사 기용”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단행한 인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았다”며 “인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는 대거 좌천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해 지휘하던 검찰 고위 인사도 모두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은 인사 협의를 두고 하루종일 격하게 맞붙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법무부 청사로 불러 인사 협의를 진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은 “명단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 공방에 대해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던 인사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며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집행행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한국당, 총선 앞두고 ‘호남’ 난제극복 고심

전북 10개구 예비후보 등록 전무

‘호남’이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TK(대구·경북) 지역에선 후보자가 넘쳐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호남지역 출마는 ‘불나방’이란 평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한국당 소속으로 예비후보를 등록한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9일 보수권에 따르면 TK 지역에선

한국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고위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광역의원 등이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은 총선에 나가려면 오는 16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현재 대구에서는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4선 주호영 의원(수성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7년 10월 30일 취임한 이 전 청장은 임기를 9개월여 남겨 놓고 지난 7일 퇴임했다.

대표 친박계(박근혜 계파) 과상도의

원의 지역구 중·남구에선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장원용 전 대구시소통특보가 한국당 공천(공직후보자추천서) 확보를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함께 일한 바 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도 사퇴 날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시장은 경북 고령 출신이지만, 대구 북구에 있는 성광고와 경북대를 나왔다. 조선 정태욱 의원 지역구인 북구갑에서 한국당 공천에 도전할 공산이 크다. /석대성 기자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 /연합뉴스

# 올 공공기관 취업문 전년比 11% 더 열려

**잡코리아 정규직 신규채용 분석**  
공기업 6224명 등 총 2만5777명  
철도공사 1550명, 가장 많이 뽑아  
준 정부기관 97곳서 7518명 채용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계획 규모는 2만57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만3260명) 대비 10.8% 증가한 수준이다.

잡코리아는 '2020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발표된 362개 공공기업의 2020년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기관 유형별로 공기업 36곳이 6224명을 뽑고, 준 정부기관 97곳에서 751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외 229곳의 기타공공기관에서 총 1만2035명의 정규직 채용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155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채용 계획 규모 1위를 차지했다.

2위에는 1500명의 정규직 채용 계획을 밝힌 한국전력공사가 올랐고,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1015명), 충남대학

교병원(953명), 부산대학교병원(944명) 순으로 5위권을 차지했다. 경상대학교병원(900명), 전남대학교병원(778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6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620명), 서울대학교병원(573명)도 정규직 채용계획 규모 10위권에 드는 공공기관으로 꼽혔다.

특히 이들 1~10위에 오른 공공기관의 채용계획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채용계획 규모의 3분의 1 이상인 3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473명), 전북대학교병원(448명), 한국수자원공사(411명),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407명), 국민연금공단(404명) 순으로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이 많다.

주무부처별로는 교육부 산하 기관들이 6258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진행할 계획으로 채용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4088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국토교통부(3866명)와 보건복지부(361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91명) 산하 기관 역시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세종대 SW중심대학 사업단 예비 세종인 SW교육 특강

세종대학교는 SW중심대학 사업단이 최근 대양AI센터에서 세종대 202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세종인을 위한 SW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으며, 전공이 다른 180여 명의 예비 신입생이 참여했다.

특강은 ▲무인이동체와 소프트웨어 기술 ▲물리 현상과 SW코딩 ▲코딩으로 만드는 특수효과 ▲개발자의 성장에 필요한 필수 학습과 습관 등이다.

### 동국대-상해중의약대 교육·연구영역 교류협정 맞손

동국대학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스님이 지난 6일 중국 상해중의약대학교를 방문해 양교 간 교육과 연구영역에 대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정을 맺은 교류 분야는 ▲학부생 및 연구생 교류 ▲교원 및 연구원 교류 ▲학술자료, 출판물 및 학술정보 교환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등이다.

### 삼육대 노원서 체험·실습형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삼육대 평생교육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2019 겨울 노원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7~10일 교내 일원에서 운영한다. 이 캠프는 노원 지역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원구와

학·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1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캠프에는 관내 초등학생 156명이 참여한다. 특히 캠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포함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 7명을 선발하여 참가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용수 기자

# 돈 대신 공포를 파는 사회



문영철 기자의  
국방 칼럼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수입비비탄총과 관련해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가 소비자와 관련산업보호가 아닌 공포를 확산시킨다는 비난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수입비비탄총의 75%가 탄속제한 장치를 해제할 경우 국내 안전 기준을 2~7배 웃도는 파괴력을 지녔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경우'다. 경우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말들을 만들수 있다. "과도로 찌를 경우 사람의 배가 갈라질 수 있다." "술을 먹고 운전할 경우 자동차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생활용품도 때때로 위험하다. 그렇지만 어디까지의 '경우'일뿐이다. 유희용 수입비비탄총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아직까지 밝혀진바 없다. 악의적인 용도로 쇠구슬을 넣고 위력을 높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정도

는 간혹 보여진다.

그래서 경찰과 정부 당국은 그럴때마다 선의의 비비탄소유자와 업계를 조사한다.

해외의 경우 유희용 비비탄총의 운동에너지(발사력)를 0.2g 탄 기준으로 1~7J(줄)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모의전투를 하기위해 필요한 사거리를 위해 허용치를 높인 것이지만 보호장구류를 갖추고 부상을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동모터로 발사되는 비비탄총을 최초로 생산해 레저스포츠로 확대시킨 것은 80년대 일본이었다. 일본은 자위대 훈련용으로 비비탄총을 활용하기도 했다. 일본에 이어 국내 기업도 90년대 전동 비비탄총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명확하지 않은 법령과 과도한 규제가 산업을 퇴보시켰다.

우리나라처럼 비비탄총을 모의총포로 엄격히 규제하던 대만은 90년대말 규제혁파를 통해, 군사문화산업으로 육성했다. 민간 레포츠 뿐만 아니라 군 사훈련용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경제와 군사 두마리 토끼를 잡았던 것이다.

국내에서 비비탄총의 판매와 소유를

금지했던 중국도 뒤늦게 경제적 가치를 깨닫고, 지난해 비비탄총을 사용하는 국제적인 모의전투경기를 개최했다. 중국은 국내 저변화는 아직 낮지만, 비비탄총 수출시장에서 시장을 점유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 소재의 회사가 훈련용 총기개념의 비비탄총을 수출하고 있다. 향후 국군훈련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군의 제식소총을 개발하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지않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이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처럼 정부 기관 등이 성과홍보용으로 내놓는 자극적 보도자료가 수출가능성을 발목잡을 지도 모른다.

성인용이 아닌 미성년 완구에 대한 안전지침 강화, 유희용 비비탄의 비정상적 사용과 유통을 막으면서도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킬 법령은 구천을 떠돌듯 국회에서 계류되다 폐기된 상황이다. 안보적요구도와 경제효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captinm@

# 法 “교육부, 상지대 정원감축 처분 지나쳐”

## “재량권 남용”... 교육부 항소 검토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받은 상지대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교육부는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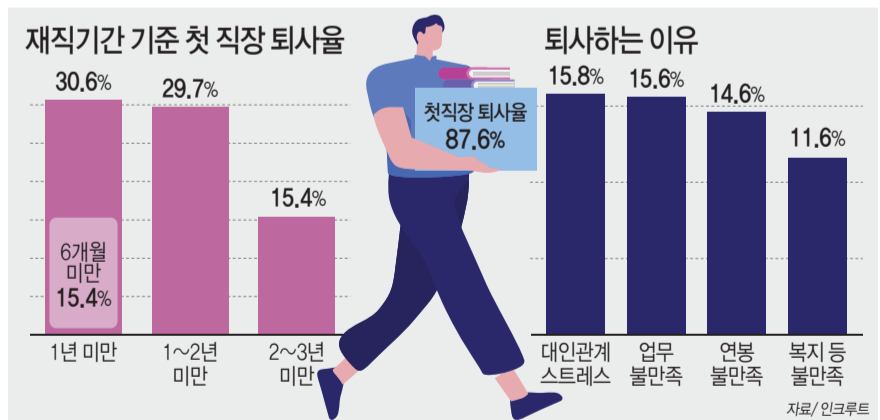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관원 부장판사)는 상지대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원 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4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상지대와 상지학원을 감사한 후 회계 부정 등 5건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8년 상지학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렸다. 상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해 실제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간 대학 운영이 부실했던 데는 교육부 책임이 크데,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지대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5건 중 2건은 이행을 했거나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학 정원을 감축하라는 교육부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도를 점수로 따져 처분 수준을 정하는데, 법원은 5건 중 3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지대의 점수가 73.2점에 해당한다고 했고, 정원감축은 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교육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 어렵게 구한 첫 직장 10명 중 8명 떠난다

회사자 '1년 미만' 30%로 가장 많아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첫 직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직장인 18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6%는 첫 직장을 퇴사했다고 답했고, 12.4%는 첫 직장에 재직 중이었다. 이는 지난 2003년 동일 조사의 첫 직장 퇴사율(80.4%)과 비교해 7.2%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기업 규모별 첫 직장 퇴사율은 ▲'공공기관'이 80.9%로 가장 낮았고 ▲'대기업' 86.8% ▲'중견기업' 87.2% ▲'중소기업' 88.1% ▲'영세기업' 90.3% 순이었다.

퇴사시기는 ▲'1년 미만' 근무자 비율이 30.6%로 가장 높았다. ▲'재직 7~12개월 이내'는 15.2%였으며 '6개월 이내' 퇴사자도 15.4%나 됐다. 특히 6개월 이내 퇴사자 비율은 '대기업' 13.7% 대비 ▲'영세기업'이 24.3%로 평균보다 높았다. /한용수 기자

## 서종국 인천대 교수 도시행정학회장 선임

한국도시행정학회는 지난 7일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2020년 학회장으로 인천대학교 서종국 교수(사진)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서 교수는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발전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의 3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국도시행정학회를 올해 이끌어 갈 책임을 지게 됐다. 서 교수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실무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과 같은 국가와 지방의 도시현안에 대해 도시행정의 주체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alton**



## E-ALTON ECONOVA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 아모레퍼시픽 서성환 선대 회장 17주기 추모식

아모레퍼시픽은 9일, 장원기념관과 전국의 사업장에서 창업자 서성환 선대 회장 영면 17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아모레퍼시픽 임직원들은 추모식을 통해 창업자의 뜻을 기리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원대한 기업'을 향한 아름다운 항해를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2003년 1월 9일 타계한 장원(莊源) 서성환(徐成煥) 선대 회장(사진)은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자다. 대한민국 화장품 역사의 선구자이자 나눔과 실천



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인, 차(茶) 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킨 다인(茶人)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아름다움과 건강으로 인류에 공헌하겠다'라는 창업자의 의지는 임직원들을 통해 2020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기아차, 2020 호주오픈 볼키즈 韓대표 20명 파견

기아차는 8일 '2020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볼키즈로 활약할 한국대표 발대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기아차는 호주오픈 공식 후원사로 17번째 국내에서 볼키즈 20명을 파견해왔다. 볼키즈 대표단은 8일 호주로 출발했으며, 멜버른에서 테니스 경기 운영과 볼키즈 역할 집중 훈련을 받게 된다.

기아차는 8일 '2020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볼키즈로 활

/기아차

## 성형부작용 해결책은?



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성형수술을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늘어나는 수요만큼 부작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피해 구제 신청건수는 ▲2014년 59건 ▲2015년 42건 ▲2016년 38건 ▲2017년 42건 ▲2018년 65건으로 이 가운데 눈과 코가 각각 89건, 59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처럼 해마다 성형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환자의 안전보다 수익창출이 우선인 일부 병의원들의 무분별한 수술 권유, 제품 덤핑을 통한 저가 경쟁, 대리수술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상업 목적을 이유로 일반의, 비전문의, 한의사까지 미용성형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환자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성형수술은 맛을 다루는 수술인 만큼 이미지가 크고 한 번 잘못되면 원상대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형부작용 사례가 속출하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병의원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허위·과대광고인데, 의료진의 실력이 아닌 과하게 보정된 성형전후 사진, 병원의 유명세, 저렴한 수술비용, 지인할인 등이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될 경우 부작용 발생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환자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육체적·정신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성형재수술은 1차수술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수술방법도 까다롭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당 수술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성형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만일 과거 불법성형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물질제거술을 통해 피부 속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일일이 제거해줘야 하고, 윤곽성형 후 눈 밑 꺼짐, 볼 처짐, 아래턱 하방 처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면거상술로 주름과 탄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성형재수술 및 재건성형은 고도의 술기를 요하는 만큼 반드시 재건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료진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개개인에 맞는 수술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상황에 대비하여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가 갖춰져 있는지, 전신마취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집도하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을 사용하거나 재사용 하지는 않는지, 수술실의 위생상태는 청결한지 등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 대우건설 신입사원, 사랑의 연탄봉사 활동

광명시 저소득층 18가구에 신입사원 130명 직접 배달

대우건설은 지난 8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우건설 신입사원 130명은 대우건설 퇴직임원 모임인 '우견회'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해 후원한 연탄 5400장을 광명시 소하동 일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18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대우건설은 2011년부터 매년 서울 중계동 104마을, 상계동 양지마을, 광명 소하동 등지에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우건설은 건설회사라는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2018년부터 해비타트 서울지회와 함께 주택보수와 시설물 설치 등 재능기부



지난 8일 대우건설 신입사원들이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서 대우건설 퇴직임원 모임 '우견회'가 기부한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대우건설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올해 총 5회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며 중구지원봉사센터와 협업해 다양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2020년에도 9차례에 걸친 릴레이 봉사활동을 통해 전

임직원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으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일조해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KB금융, LPGA 루키 전지원 선수와 메인스폰서 계약

KB금융그룹은 9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LPGA 프로골퍼 전지원 선수와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전지원 선수를 비롯해 박인비, 전인지, 안송이, 오지현 선수 등 총 다섯 명의 프로골퍼를 후원하게 됐다. 허인 KB국민은행장(오른쪽)이 전지원 선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



삼성카드, 준오뷰티와 업무제휴 협약

삼성카드는 지난 8일 국내 1위 헤어 브랜드 기업인 '준오뷰티'와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에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삼성카드의 빅데이터 역량과 준오뷰티의 차별적 서비스 역량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카드 원기찬 사장(오른쪽)과 준오뷰티 강윤선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카드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보호종료청년 지원 맞손

스타벅스커피가 새해 첫 사회공헌활동을 개시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지난 8일 아름다운재단과 '보호종료청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아름다운 재단에 2억5000만원의 후원금 전달하고, 앞으로도 펀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진행된 체결식에서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왼쪽)와 권한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 인사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 일자리과장 한상균
- ◆외교부 △ 국제안보대사 배종민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부장급 승진 △ 경영기획부장 이동욱 △ 성능검증관리부장 신재용 △ 부장급 전보 △ 방사선안전부장 박병우 △ 방사선안전교육연구원장 송은동 △ 팀장급 승진 △ 기획예산팀장 정영진 △ 총무인사팀장 오병철 △ 방사선안전팀장 주선동 △ 기금운용팀장 박진영 △ 팀장급 전보 △ 인증심사팀장 안창윤 △ 교육기획팀장 박민규
- ◆문화체육관광부 △ 과장급 전보 △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안승섭 △ 규제개혁담당관 김규직
-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 참여예산과장 권기정
- ◆신동아건설 △ 선임 △ 개발사업1본부장 전무 윤해식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 전보 △ 소방정책과장 김지형 △ 119종합상황실장 황승철 △ 제주소방서장 김영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경정 승진 △ 포천청문감사관실 김봉근 △ 파주 정보 김세중 △ 지방청 마약수사 조병화 △ 지방청 제2부 경비교통 대테러 지정현 △ 구리 여성청소년 이기중 △ 경감 승진 △ 포천 경무 김진기 △ 남양주 여성청소년 김강복 △ 구리 정보보안 강진석 △ 일산서부 경무 허운산 △ 지방청 정보3 나창민 △ 고양 정보보안 한필 △ 고양 여성청소년 박유신 △ 동두천 수사 이순재 △ 지방청 보안 외사 홍상기 △ 파주 탄현파출소 안종경 △ 가평 경무 윤남주 △ 구리 형사 김득겸 △ 지방청 수사심의 이종길 △ 지방청 교통안전 김상달 △ 의정부 교통 박상균 △ 일산서부 탄현지구대 황경훈 △ 일산동부 풍사파출소 이응식 △ 남양주 경무 유영화 △ 양주 정보보안 최명주 △ 지방청 홍보 이재학 △ 연천 생활안전교통 지승열 △ 일산동부 112 종합상황실 김명란 △ 남양주 형사 유정숙 △ 지방청 경비교통 의무경찰 김해진 △ 일산동부 마두지구 대 조아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백두산화산연구단장 이승렬 △ 화성지구조연구단장 최진혁 △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이재욱

- ◆시장경제신문 △ 유통부장 홍성인 △ 산업부장 양원석 △ 금융팀장 오창균

### 부음

- ▲ 박준규씨 별세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일, 02-3410-3151.
- ▲ 이해수씨 별세, 이근갑(비에이치엔바이오 대표이사, 前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 대표)·상현(창원) 부친상, 김영재(인천가정법원 상담위원) 시부상 = 9일 오전 2시 39분, 카톨릭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서울 반포, 9일 오전 11시~11일 오전 7시)·자갈산장례식장 (경남 의령, 11일 오후 1시~12일 오전 8시), 발인 12일 오전 8시, 장지 경남 의령군 칠곡면 선영, 031-371-3621, 043-539-8024.
- ▲ 전우석씨 별세, 전영덕(KPP 에코로지스 대표)·전영훈·전영진·전혜숙·전혜정씨 부친상, 전성주(천주교 서산 공군비행장 군중사제)·전남주(MBN 기자)씨 조부상 = 8일 오후 9시, 충남 서천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장지 충남 서천 오석리 선영, 041-952-4490.



# 5분만에 '나만의 마스크팩'... 부위별 관리 'LED 패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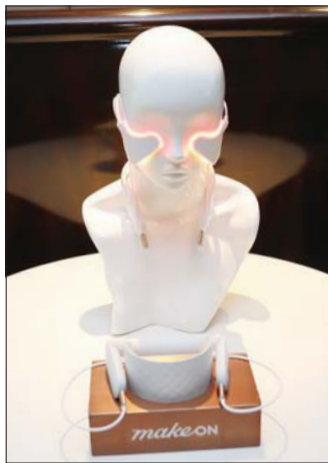
### CES 2020

전세계에 공개된 아모레퍼시픽

혁신상 수상제품 쇼케이스 열어 방문객들에 제품 체험기회 제공 4월 플래그십스토어서 정식개시



CES 2020 3D프린팅 맞춤형 마스크 팩얼굴 계속 장면.



CES 2020에 전시된 LED 플렉서블 패치.



CES 2020 혁신상 수상 쇼케이스에 전시된 3D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소비자 가전 및 기술 전시회인 'CES 2020' 현장에서 정보기술 분야와 접목한 한국 뷰티 업계의 첨단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아모레퍼시픽은 'CES 테크 웨스트 베네치안 볼룸'의 혁신상 수상 제품 쇼케이스에 '3D 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을 전시했다.

해당 공간에는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3D 프린팅, AI(인공지능), 스마트홈, VR/AR(가상현실/증강현실), IoT(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올해의 첨단 기술과 장비들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방문객들이 3D 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과 LED 플렉서블 패치(가칭)를 직접 써볼 수 있도록 베네치안에서 제품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해당 공간에서 선보인 '3D 프린팅 맞춤형 마스크팩'은 사람마다 다른 얼굴 크기, 피부 특성을 반영해 나만의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만드는 기술이다. 마스크

도안을 실시간으로 디자인해 5분 안에 나만의 마스크팩을 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방문객들은 "최첨단 기술로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져, 나만을 위한 맞춤형 마스크팩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다섯 가지 부위에 여섯 가지 처방으로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구축한 관련 서비스는 올해 4월, 아이오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정식으로 개시할 예정

이다.

더불어 CES 2020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이 최초로 선보인 'LED 플렉서블 패치'에 대해서도 "피부 부위별 고민을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뷰티 디바이스 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무게가 가볍고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는 방문객 반응이 있었다. 'LED 플렉서블 패치'는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패치 형태의 LED를 피부에 밀착해 사용하는 뷰티 디바이스 제품이다. 초밀착 설계된 프로그래밍 LED 패치로 집중 케어가 필요한 표정 부위의 흔적을 지워주는 것을 콘셉트로 하는 해당 제품은, 휘어지는 재질의 특성을 활용해 LED 광원을 피부와 최대한 밀착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피부 깊숙한 곳까지 탄력/톤업/진정 등 피부 고민에 맞춤형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박원석 기반혁신연구소장은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이 CES 2020을 통해 선보인, 정보기술 분야와 융합한 한국 뷰티 업계의 혁신 솔루션을 전세계 고객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열린 CES에는 161개 국가에서 4500여 개의 업체, 약 18만 명이 참가했다. 한국 업체도 390여 개가 참가해 여러 업계의 다양한 혁신 신기술을 전시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롯데홈쇼핑 "설 음식·선물 걱정 마세요"

20일까지 '설 마음 한상' 특집전

특산품, 해외 식자재 등 집중편성 황성한우·감굴·상차림 등 방송



롯데홈쇼핑 설 마음 한상 특집전 이미지.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은 설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인기 먹거리와 선물세트 등을 다양한 혜택으로 선보이는 '설 마음 한상' 특집전을 진행한다.

명절 차례상은 점차 간소화되고, 가족들을 위한 상차림은 더욱 고급화되는 추세에 따라 프리미엄 전국 특산품과 해외 유명 고급 식자재 등을 집중 편성했다.

18일 오전 9시 20분에는 '황성축협한우 등심세트'를 단독으로 선보인다. 황성축협한우세트는 롯데홈쇼핑에서 지난해 설과 추석에 총 1만 5천 세트가 판매된 명절 인기 상품이다.

올해는 '갈비찜'보다 '구이'나 '스테이크'를 더욱 선호하는 육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본 구성(등심, 불고기, 사골곰탕 액기스)에 등심(400g)과 불고기(400g)를 한 팩씩 추가한 특별 구성으로 준비했다. 16일 오후 9시 40분에는 '제주 특대은갈치'를 선보인다. 시중에서 보기 힘든 430g의 특대 사이즈로 구성된 4미(총 16토막) 세트를 제주도산지 직송으로 배송한다.

19일 오전 10시 '최유라쇼'에서는 당도 13brix 이상으로만 선별된 프리미엄

감굴 '제주 불로초 감굴' (1.5kg)과, 부산 기장 마을의 일명 '쫄쫄이'미역인 '소금하기 기장미역', 스페인 올리브오일의 명가인 '듀엘올리바'의 '벤타 델 바론 올리브유 세트'를 연이어 소개한다. 16일 오후 8시 40분에는 이탈리아 100년 전통의 '사비니 트러플오일 세트'도 단독으로 편성하고, 고급 설 선물 포장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가정간편식(HMR)도 확대한다. 11일 오후 3시 10분에는 '홍진경 명절 한상차림 세트'를 준비했다.

대표적 명절 음식인 갈비찜, 잡채, 모듬전으로 구성해 손쉽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기획상품이다. 11일 오후 7시 20분에는 지난해 설에 간편식 판매 1위를 달성한 식품 브랜드 '김나운 더 키친'의 'LA갈비'를, 18일 오후 3시 10분에는 '언양식 불고기 와규한판'을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 유통단신

신세계푸드

간장찜닭·돼지갈비찜 2종

신세계푸드가 혼밥족을 위해 소포장으로 구성된 올반 찜류 가정간편식 2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올반 안동식 간장찜닭'과 '올반 매콤 돼지갈비찜(사진)'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대표 외식메뉴인 간장찜닭과 돼지갈비찜을 소포장 가정간편식으로 구현한 제품이다. 증기배출 파우치를 적용하여 포장지를 뜯지 않고 봉지째 전자레인지에 4분만 데우면 돼 조리도 간편하다. /박인용 기자



## 로얄살루트, 21년 스노우 폴로 에디션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위스키 브랜드 '로얄살루트'가 위스키 애호가들을 위한 한정판 에디션 '로얄살루트 21년 스노우 폴로 에디션(사진)'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폴로 컬렉션의 세 번째 제품인 '로얄살루트 21년 스노우 폴로 에디션'은 역동적인 스노우 폴로에서 영감을 받은 획기적인 에디션으로, 이번 시즌에만 한정적으로 만날 수 있다. 로얄살루트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이 정교한 블렌딩으로 완성하고, 전 잉글랜드 폴로 팀 주장인 '말콤 보웬'이 홍보대사로 참여하는 특별한 제품이다.

따라 스노우 폴로가 처음 탄생한 스위스 생모리츠의 위도와 같은 46.5도의 럭셔리 그레이드 위스키로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에디션은 블렌딩의 예술에 혁신을 접목하는 로얄살루트의 핵심 가치에

'로얄살루트 21년 스노우 폴로 에디션' 1월부터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700ml 기준 33만원(백화점 판매가 기준)이다. /박인용 기자

## CJ제일제당, 설 선물세트 300종 선보여

스팸 중심 실용·실속세트 구성

CJ제일제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300여종의 선물세트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도 합리적인 가격대와 가심비가 최대 장점인 가공식품 선물세트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J제일제당은 명절 최고 인기 품목인 '스팸'을 중심으로 실용적이면서 실속 있는 다양한 구성을 기획했다.

특히 선물세트 판매 데이터 분석 결과 인기품목 4종 이상의 복합형 세트와 한뿌리, 흑삼 등 건강식품 세트 판매 강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2~3만원대의 합리적인 혼합세트와 건강식품 선물세트 비중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CJ제일제당은 선물세트 포장재의 부피는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여 '친환경 포장'트렌드를 이어갈 계획이다.

캔햄 카테고리에서 15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스팸으로 구성된 스팸



스팸 8호 /CJ제일제당

선물세트는 명절마다 성장을 지속하며 가공식품 대표 선물세트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도 매년 CJ제일제당 전체 선물세트 판매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선물세트 '스팸 8호 시리즈'와 스팸과 백설 고급유로 구성된 '스팸복합1호'가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제품만을 구성한 특선세트는 '최고의 선택', '특별한 선택'으로 나눠 합리적인 가격대에 알찬 구성으로 선물의 만족도를 높였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이마트 점포 34곳서 설 선물세트 우선 판매

이마트가 설 명절을 약 2주가량 앞두고 1월 9일부터 성수점, 용산점, 구로점 등 기업체 및 공단 수요가 많은 점포 34곳에서 우선적으로 선물세트 전개 및 판매에 돌입한다.



이마트에서 모델들이 설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

대표 상품으로는 '정성스럽게 선별한 유명산지 배(9입 이내/국내산/5만 9800원)'을 행사카드 구매 시 30% 할인한 4만 1860원에 판매하며, '유명산지 혼합세트(사과 6입, 배 6입/국내산/7만 9800원)'을 행사카드 구매 시 30% 할인된 5만 586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통조림 선물세트도 '동원튜나리참 100-E호'와 'CJ특선N호'를 행사카드 구매 시 각 3만 4930원/3만 3460원에 판매한다. /신원선 기자



우중수 한미약품 대표(왼쪽)와 이일형 로이드인증원 대표가 8일 인증서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미약품 '사업 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재해시 최단시간 기업 정상화 능력 재인증 심사 통해 지속적 점검·관리

한미약품그룹이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위기관리 및 대응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한미약품은 8일 영국계 글로벌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22301 인증서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ISO 22301은 2012년 5월 국제표준화기관(ISO)에 의해 발효된 국제 표준으로, 각종 사고나 재해 발생으로 예상치 못하게 업무가 중단될 경우 최단시간 내 기업활동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ISO 22301 인증은 제조 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미약품그룹은 제조공정(공장)은 물론 일반 업무 분야까지 인증 범위를 넓혔다.

한미약품그룹은 팔탄스마트플랜트, 평택바이오플랜트, 세파플랜트, 연구센터와 서울 본사에 이르는 전 사업장의 업무 및 공정 분야를 세분화해 예상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 사전 최소화 및 돌발 상황 신속 대응, 업무 복구 프로세스 등의 토탈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미약품그룹은 내부 진단, 실적자료 제출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서

류, 현장 인증심사 등을 거쳐 인증을 획득했으며, 매년 사후 심사 및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사적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22301) 인증을 받은 국내 제약업체는 한미약품이 유일하며, 바이오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에 받았다.

이번 인증에 따라 한미약품그룹은 국내 제약업계 최다인 총 7개의 국제표준 인증을 확보하게 됐다. 한미약품그룹 전체로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정보보안 국제표준(ISO 27001), 사업연속성 경영시스템(ISO 22301) 인증을 받았으며, 팔탄·평택 플랜트와 연구센터, 한미정밀화학, 북경 한미약품이 받은 인증으로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2종(ISO 45001, OHSAS 18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의료기기품질경영시스템(ISO 13485) 등이 있다.

이일형 로이드인증원 대표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생명과 건강에 직결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 위기 관리 및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한미약품의 위기극복 능력과 의약품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이대서울병원 지역응급센터 지정... 중증진료 적합

올해부터 2년간

이대서울병원이 9일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이대서울병원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는 서울 지역구 중 2번째로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어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지역 내 대규모 재난 대응에 취약했다. 이번에 최신 시설과 우수 의료진으로 구성된 이대서울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강서구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대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응급 의학과 의료진과 임상과 당직의의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치료의 골든타임에 중요한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검사와 진단이 가능하다.

또 멀리 있는 환자의 빠른 이송을 위



이대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모습

해 이대서울병원 옥상에는 닥터헬기 착륙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감염환자 및 감염 의심 환자 전용 출입구와 치료 시설을 갖추는 등 다양한 응급 환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난 상황에 따른 대규모 환자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주변 복도에 각종 의료가스 설비를 설치했으며, 병원 외 재난에 참여할 의료팀 구성, 지역 내 응급 의료 종사자를 위한 재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 달콤함에 추위 사르르... 겨울 음료

겨울간식 고구마에 딱 '스프라이트' 건강한 단맛 '호박고구마맛 우유' 든든한 한끼 손색없는 '벨런스밀' 레몬, 오렌지등으로 만든 '뱅쇼'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식음료업계는 겨울철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다양한 겨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겨울 대표 간식은 군고구마와 군밤, 만두, 찜빵, 어묵 등이 있다. 아울러 겨울 입맛 돋우는 맛있는 음식에 상쾌함을 곁들일 수 있는 환상의 궁합 자랑하는 제품도 찾게 된다. 겨울철 대표 건강 간식인 고구마를 더한 제품부터 추운 날씨도 견뎌낼 만큼 한입만 먹어도 입안 가득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까지 업계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겨울에도 상쾌한 탄산으로 느끼한 서양식, 담백한 한식, 이색적인 퓨전 한식, 달콤한 겨울 간식 고구마, 호빵 등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는 환상적인 맛의 케미 자랑하는 코카콜라 '스프라이트'가 있다.

스프라이트는 최근 'Sprite & Meal' 캠페인을 통해 상쾌한 스프라이트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쿨하게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건강한 단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고구마를 더한 제품이 인기다. 빙그레



잠바주스 겨울 시즌 음료 3종 /SPC그룹

는 다섯 번째 한정판으로 달콤한 고구마의 맛을 구현한 '호박고구마맛 우유'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바나나맛 우유의 시그니처 단지 모양 용기를 사용해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 제품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도 호박고구마의 고소한 풍미를 살린 신제품 '서울우유 호박고구마'를 출시했다. 서울우유 호박고구마는 'K-밀크' 인증을 받은 서울우유 1등급 A원유에 국내산 호박고구마 페이스를 듬뿍 담은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통곡물 간편대용식 제품 '벨런스밀'을 선보였다. 용기 안에 6가지 통곡물 등의 분말을 담아 물만 부으면 간편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귀리, 바나나, 고구마, 견과 등 네 가지 종류다. 현미, 보리, 귀리, 콩, 조, 수수 등 6



딸기 메뉴 5종 /드롭탑

가지 통곡물을 주원료로 만들었으며, 다양한 식감과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놀라와 현미칩 등을 추가했다.

과일 원료 활용한 제품도 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잠바주스는 트로피컬티, 오렌지, 코코넛 밀크 등을 활용한 겨울 시즌 음료 3종을 출시했다. 이번 신메뉴는 열대과일이 블렌딩 된 히비스커스 트로피컬 티에 오렌지, 레몬 등을 혼합해 만든 '캘리포니아 뱅쇼' 등 3종이다.

카페 드롭탑은 겨울 딸기의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딸기 시즌 음료 5종을 출시했다. 이번 신메뉴는 겨울철 인기가 많은 딸기 음료를 취향에 따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특히 드롭탑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딸기 베이스를 활용해 기존 딸기 메뉴보다 상큼한 맛과 향이 돋보인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정부, 난임부부 최대 110만원 지원

(2인 월소득 538만원 이하)

건보부담금·비급여 의료비 일부 올해부터 시술별 지원금액 상이

정부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부부 2인의 월소득이 538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진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변동이 없다. 작년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한 것이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평균 진료비는 각각 102만원, 44만원, 24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직접 부담 비용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모든 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때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급 대상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한다.

1회차 신선배아 시술로 건강보험 일

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100만원, 배아동결비 4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이 청구됐다면, 본인부담금 90만원(총액의 90%)과 배아동결비 30만원(상한액), 유산방지제 15만원(청구액)을 합쳐 110만원을 받게 된다. 합계액은 135만원이지만 상한액까지만 지급된다.

시술비가 지원되는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다. 5·6·7회째 신선배아, 4·5회째 동결배아, 4·5회째 인공수정, 만 45세 이상 난임자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액이 다소 낮아진다.

올해는 부부가구(2인) 월소득이 538만6000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부모를 모시는 등 가구원이 2인 이상일 때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이세경 기자 seille@

## 대웅제약 JP모건헬스케어에서 신약개발 로드맵 공유

대웅제약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해외진출 전략과 신약 개발 로드맵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세계 최고 권위의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현지시

간) 미국에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과 연구, 글로벌 부문의 주요 직책자가 참석한다. 대웅제약은 신홍국에서 급성장 중인 기업을 소개하는 '이머징 마켓 트랙'에서 전승호 사장이 글로벌 전략과 R&D 비전을 제시한다.

전승호 사장은 2020년 주요 신약 개발 현황과 계획을 비롯해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영국 '아바타'와 조인트벤처 설립 계약 체결 등 R&D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보툴리눔 독신 최초로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 본격 진출하는 캐거를 이룬 '나보타'의 글로벌 진출 현황과 함께 선진국 치료 시장 진출 전략을 소개한다.

/이세경 기자

# 삼성 디지털프라자 20주년 기념 대규모 행사

## 1월 한달간 포인트·사은품 증정

삼성전자가 디지털프라자탄생 20주년을 기념해 1월 한달간 '삼성 디지털프라자 20주년 고객 감사 대축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디지털프라자 20주년 대축제에서는 비스포크 냉장고, QLED TV, 그랑데 건조기, 에어드레서, 무풍큐브 등 삼성전자의 최신 가전 제품들을 포인트 혜택과 사은품 등과 함께 판매한다.

행사 기간 인시 베스트 행사 모델을 구매하면 품목에 따라 최대 130만 포인트를, 프리미엄 행사 모델을 여러 품목 구매하면 최대 5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드레서 등 3개 제품 의류케어 특별 패키지는 100만포인트 혜택이 있다. 비스포크 냉장고와 무풍큐브를 동시에



삼성전자는 디지털프라자 20주년을 기념해 감사 대축제를 실시한다.

/삼성전자

구매하면 최대 115만포인트를 증정한다.

초대형 TV 구매 고객에는 'TV는 거거의 선! 대국민 TV 특별전'도 마련했다. 75형 QLED TV 행사 모델 구매 시 75만 포인트 혜택과 웨이브 6개월 이용권을, 더 세리프

구매시 JBL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물한다.

웨딩 마일리지에 가입한 혼수 고객에는 최대 200만원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구매 금액에 따라 다채로운 사은품도 마련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실손보험 '갈아타기'



## 기지수첩

김희주 (파이낸스&마켓부)

올해 실손의료보험료가 9% 가량 오르거나 내릴 조짐이다. 가지고 있는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9년 이전에 가입한 '구(舊) 실손'의 경우 사실상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갈아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보험료가 감소하는 만큼 보장 범위, 수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담보 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 (구 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된 '표준화 실손'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착한 실손' (신 실손) 등 3종류로 나뉜다.

보험료 인상이 논의 중인 상품은 구 실손이다. 구 실손의 보험료는 오는 4월 1일부터 조정될 예정이다. 인상 폭은 현재 조정을 마친 표준화실손과 비슷하게 평균 9.8~9.9%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 실손은 같은 폭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에 실손에서 신 실손으로 갈아타려는 소비자들 이 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신 실손은 보험료가 적은 대신 보장 내용도 줄었기 때문이다.

비급여항목은 기존회당 최대 30만원, 연간누적 180회까지 보장됐지만 지금은 도수치료가 350만원, 비급여수사는 250만원, MRI는 300만원으로 각각 한도금액이 설정됐다. 보장횟수도 50회로 제한됐다.

반면 보장성이 높은 구 실손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병원 이용이 잦아질수록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신 실손과 달리 갱신 기간도 3~5년으로 긴 편이라 매년 보험료 인상의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구 실손은 개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어서 보장범위가 천차만별이다. 자기부담금(진료비 중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예 없는 상품도 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hj89@metroseoul.co.kr

# 오리온, '中 고객 추천지수' 6년 연속 1위

오리온은 중국 브랜드 평가 기관인 'Chn brand'가 발표한 '2020년 중국 고객 추천지수(C-NPS)' 파이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중국 고객 추천지수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판매되는 브랜드에 대한 평판과 충성도를 평가한다. 중국 최초의 고객 추천도 평가 시스템으로, 중국 소비 트렌드의 방향성 제시 및 기업과 브랜드의 성장

성을 가능하는 잣대로 활용 중이다. 오리온은 중국 고객 추천지수가 신설된 2015년부터 매해 파이 부문 1위에 오르며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충성도와 브랜드 파워를 지속 입증하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 1993년 중국에 본격 진출한 이래 뛰어난 맛과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현지 소비자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오리온 초코파이는 '좋은



오리온 중국 파이 제품.

/오리온

친구'라는 뜻의 '하오리요파이'로 중국인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며 파이스장을 선도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오늘의 운세 1월 10일 (음 12월 16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인색함과 절약은 다른 것이다. 48년생 명예손상이 우려되니 언행을 조심. 60년생 부드러움 보다 강하게 나가야 하는 날. 72년생 일하고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는다. 84년생 뛰어난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

**말** 42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피라. 54년생 오랜 적인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66년생 버릴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 78년생 망설이 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90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도장에 유의.

**소** 37년생 무지개 너머 신천지를 기대. 49년생 남의 협담을 들어도 전달하지 마라. 61년생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 73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85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하라.

**양** 43년생 먹구름이 보이니 원형은 삼가라. 55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67년생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79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시작. 91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쉬어라.

**호랑이** 38년생 자존심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다. 50년생 자신만이 아는 재물놀리는 정보라도 공유하라. 62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74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86년생 결론은 내 뜻대로 된다.

**원숭이** 44년생 주변의 무관심이 오히려 편다. 56년생 적의 적은 나의 동지. 68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찌겠나. 80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92년생 부모님이 전적으로 믿어주시 절로 힘이 난다.

**토끼** 39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51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마라. 63년생 협력자를 구하고 일을 진행. 75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87년생 겉모양만 보고 상대를 판단하다가 낭패 본다.

**닭** 45년생 꽃비가 내리니 세상이 환하다. 57년생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 69년생 생 빛을 내서 빛을 갚는 형국. 81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당한다. 93년생 기회는 있느니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물고기** 40년생 가슴에 단비가 내리니 행운이 따른다. 52년생 작은 이익에 연연해 하지 마라. 64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76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이익은 발생. 88년생 부적절한 이성 관계는 마음만 다친다.

**개** 46년생 기침이 잦으면 반드시 병원으로. 58년생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가라. 70년생 직장에서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온다. 82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94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도록하라.

**뱀** 41년생 사방에 적이 있어서 일의 성사가 어렵다. 53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를 얻는다. 65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77년생 노후를 위해 연금을 준비. 89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지** 47년생 절약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인색함을 면한다. 59년생 비빌 언덕이 절실. 71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83년생 책임하기를 좋아하지마라. 95년생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데 모르는 곳에서 도움을 준다.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4		9					8
9	5			2	8			3
		6	5		9		2	
8								
		1	7		6		5	
6	1			7	5			9
	2			8				6
						4		

			9					7
			6					
			3		8	6		1
8	6	1						
			9					
		7			9			5
2				1	7	8		4
		8		4		7	6	

**스도쿠 정답**

5	4	7	9	1	6	8	2	3
9	1	8	6	8	7	2	5	
6	8	7	5	1	2	4	1	9
7	5	9	8	1	6	2		
1	6	9	2	7	5	1	8	
2	8	6	1	5	9	4	7	
4	7	1	8	2	9	1	5	6
8	9	5	1	6	2	7	3	1
2	1	6	1	5	7	8	9	4

문제 제공= **보스**



# 김상희의四季

## 백세시대 누리려면

마음의 작용이나 몸의 구성을 보면 몸은 작은 우주이다. 인류는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불, 물, 나무, 쇠, 흙이다. 화, 수, 목, 금, 토라고 불렀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불과 물이다.

인체에도 오행의 원리가 작용하는데 심장을 화, 위장을 토, 대장은 금, 신장은 수, 간장은 목에 해당한다. 인체에서 불에 해당하는 건 심장이다. 화를 내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솟아오른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도 충혈되는데 심장에 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더 심한 영향을 미친다. 화가 약한 심장에 충격을 주게 되고 아주 심할 때는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70세 이상 생존하는 사람이 여자는 70%에 달하지만 남자는 3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세시대라고 다들 백세를 사는 건 아니다. 인체에서 중요한 심장에 무리가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 평균적으로 화가 많다. 별일 아닌 것으로 주먹질이 오가거나 심할 땐 누군가를 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분노조절장애라는 말이 유행하처럼 번지기도 했다. 화는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인체에서 화를 내면 기가 위로 솟구쳐 오르면서 열을 만든다. 이런 열들이 심장에 큰 병을 만든다. 자기가 심장에 열이 많은 사주라면 특히 더 화를 잘 관리해야 한다.

화를 관리하려면 생활 속에서 세 가지를 조심하는 게 좋다. 화를 자제하는 게 첫 번째고 밥을 천천히 먹는 게 두 번째이며 천천히 걷는 게 세 번째다.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인생의 속도를 조금 느긋하게 갖는 게 초점이다. 심한 열이 발생하면 열은 몸을 괴롭힌다. 결과로 중풍이나 고혈압 또는 심장마비 질환이 생긴다. 장수의 지름길은 화를 자제해서 심장에 열이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6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5호

# 덕혼 멀롯, 미운오리새끼서 백조로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56〉 덕혼 빈야드

“개성없는 와인을 분류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전형이지...난 절대로 싸구려 와인은 못 참아.”

영화 ‘사이드웨이’에서 와인애호가 마일즈가 포도품종 멀롯(Melot)을 겨냥해 한 말이다. 우리말 자막으로는 ‘싸구려’로 쓰였지만 영화에서 실제 대사에서 쓰인 단어는 멀롯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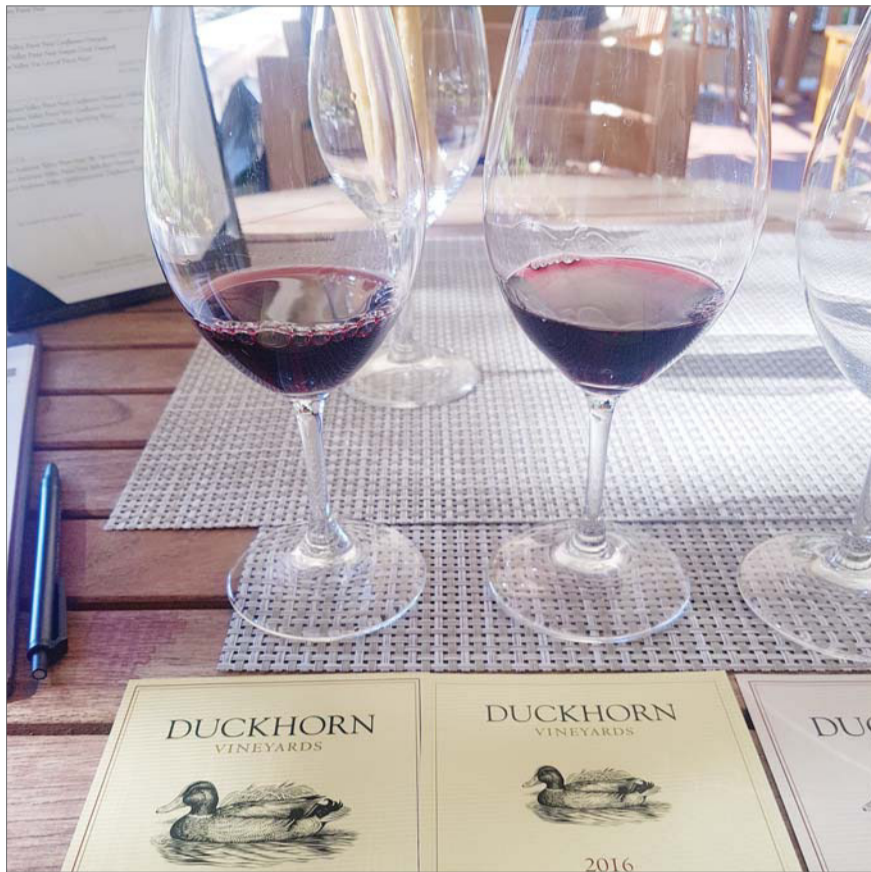
사실 멀롯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더 많이 해왔다. 단단한 카베네 소비뇽에 부드러운 질감을 더하는 정도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일부 최상급 와인이 멀롯을 주로 썼지만 드문 경우고, 특히 미국 등 신세계에서는 마일즈의 말처럼 더 박한 평가를 받았다.

이런 멀롯의 위상을 바꿔놓은 곳이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와이너리 덕혼 빈야드다.

덕혼 빈야드는 설립 초기인 1978년부터 멀롯을 주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었다. 설립자 댄과 마가렛 부부가 와이너리를 세운 것도 프랑스 보르도를 여행하며 와인의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지만 특히 생페리리옹과 보르도를 지역의 주 품종인 멀롯 와인에 깊이 매료되면서다. 덕혼 빈야드의 멀롯은 보르도를 특유의 벨벳과 같은 질감과 함께 나파밸리 토양의 응집력이 더해지면서 신세계 멀롯 와인의 기준점이 됐다.

‘덕혼 쓰리 팜즈 빈야드 멀롯’은 미국 최초의 싱글 빈야드 멀롯이다. 세 그루의 야자수(Three Palms)가 있다는 포도밭 이름처럼 따뜻한 경사지에 위치해 과실 풍미가 풍부하고, 복합미와 농축미, 미네랄리티까지 갖췄다.

시음했던 2016 빈티지는 멀롯의 비중이 93%에 달했다. 코에서는 검붉은



(왼쪽부터)덕혼 나파 벨리 멀롯 아틀라스 피크 2016, 덕혼 쓰리 팜즈 빈야드 멀롯 2016. /안상미 기자

과실과 시나몬은 물론 코코아와 달콤한 오크향 등이 복합적으로 느껴졌다. 입 안에서는 탄탄하고 매끄러운 탄닌, 오크 풍미가 복합적인 향과 어우러져 길게 이어졌다.

2014 빈티지는 지난 2017년 와인 스펙테이터가 선정한 100대 와인 가운데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와인 스펙테이터가 100대 와인을 발표한 이후로 멀롯을 주 품종으로 한 와인이 1위를 차지한 것을 덕혼이 두 번째일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다.

와인 스펙테이터는 “멀롯은 캘리포니아에서 카베네 소비뇽이나 피노누아와 같은 위상을 가지지 못했지만 제대로 만들면 환상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덕혼 나파 벨리 멀롯’은 쓰리 팜즈 빈야드에서 재배한 포도를 20% 이상 사용해 탄탄한 구조와 깊이 있는 풍미가 특징이다. 멀롯의 비중이 80% 안팎이며, 카베네 소비뇽과 말벵, 뽀피 베르도 등을 섞어 만든다.

와이너리를 방문한 날 시음할 수 있

었던 ‘덕혼 아틀라스 피크 나파벨리 멀롯 2016’은 멀롯으로만 만든다. 나파벨리의 고지대인 아틀라스 피크에서 재배된 포도를 사용해 복합미와 구조감이 도드라지며, 장기숙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덕혼 빈야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비뇽 블랑이다. 소비뇽 블랑 역시 우아하고 매혹적인 화이트 와인을 목표로 와이너리 설립 초창기인 1982년부터 생산됐다.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오찬 와인으로 ‘덕혼 나파벨리 소비뇽 블랑’이 선정되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덕혼 나파벨리 소비뇽 블랑 2018’은 소비뇽 블랑에 세미용을 섞어 만들었다. 생동감 있게 톡톡 튀는 느낌의 감귤류와 열대과일의 향을 같이 느낄 수 있다. 첫 인상은 신선하지만 과실의 풍미에 단단한 미네랄이 더해져 깊이 있고 풍부한 맛이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 서울드래곤시티 레스토랑 ‘무슬림 프렌들리’ 인증

호텔플렉스 서울드래곤시티가 한국관광공사의 ‘무슬림 프렌들리’ 레스토랑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드래곤시티는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동지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할랄 메뉴를 개발, 한국관광공사에서 2016년에 도입한 무슬림 식당 친화등급제에서 ‘무슬림 프렌들리’ 레스토랑 인증을 통과했다. 호텔의 대표 레스토랑 ▲푸드 익스체인지 ▲인스타일 ▲알라메종 와인 앤 다인 ▲더리본 등 총 4개 업장에서 다양한 할랄 푸드를 선보이며 중동지역 관광객의 입맛 공략에 나섰다.

서울드래곤시티는 할랄인증식재료로 인도, 모로코식 등 전통 방식의 할랄 푸드는 물론, 불고기 양념과 같이 한식이 더해진 이색 할랄 푸드도 함께 선보인다. /박인용 기자



안다르 요가 클래스 수업. /안다르

## 안다르 요가클래스 성료... 애슬레저 선도

애슬레저 리딩 브랜드 안다르가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요가 클래스에 정원 대비 약 5배 이상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안다르는 지난 12월 5일부터 30일까지 성수동 ‘요가웨이브’에서 요가 클래스를 진행했다. 아크로요가, 하타요

가, 매트필라테스 등 다양한 테마의 요가 클래스를 15개 오픈해 참여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클래스 당 10명 내외의 소수 정예로 진행되는 안다르 클래스는 총 292명의 참여인원으로 진행됐으며, 노쇼비율이 5% 미만으로 집계되는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양상을 보였다. /신원선 기자

〈편의+프리미엄〉

# 편리미엄 패션템 입고 설 명절연휴 즐겨볼까

BYC, 4방향 신축성 ‘보디히트’ 아이디어, 방수 우수한 부츠 선택

2020년 명절을 앞두고 여행 계획이 세우는 이들이 많다. 패션·뷰티업계는 짧은 연휴 여행객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줄 아이템들을 선보였다. 겨울철 어디서든 활용하기 좋은 발열 라이프웨어와 외부 활동 시 건조함을 해결해줄 쿠션 파운데이션, 보온과 방수가 뛰어난 부츠까지 다양한 여행 아이템을 소개한다.

BYC는 짧은 연휴 여행 시 활동이 편하고 활용도 높은 발열 라이프웨어 보디히트를 선보였다. 보디히트는 보온 기능이 우수하며 얇고 가벼워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데일리 아이템으로 적합하며 4방향 신축성이 우수하고, 몸에 부드럽게 감겨 장기간 비행이나 실외 활동이 편안하다. 실내 라운지웨어 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레저, 잠옷으로도 입을 수 있어 여러 벌의 보디히트만으로 여행 시 짐을 최소화 하고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다.



보디히트

/BYC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디어가 보온성과 방수성을 강화한 겨울 계절용 캐주얼 겨울 부츠를 출시했다. 아이디어 ‘메이즈 부츠’는 슬림한 스타일의 세련된 남녀 공용 로우컷 방한 부츠다. 방수 지퍼가 달린 끈이 없는 단화 형태로 신고 벗기 편하다. 생활방수가 가능한 립스탑 원단에 촘촘하게 퀀팅 라인을 넣어 깔금하고 포말한 느낌을 강조했다. 내피와 발바닥 인솔 부분에 사용된 플리스 원단은 보온성을 극대화해 발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은은한 광채·커버로 럭셔리 메이크업 완성

### LG생활건강 쉘37\*

LG생활건강은 자연·발효 뷰티 브랜드 ‘쉘37’ (이하 쉘)에서 절정의 피부 빛을 완성하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인 ‘로시크숨마 쉬어 커버 메탈쿠션, 골든 피니싱 팩트(사진)’를 출시하며 럭셔리 색조 화장품의 라인업을 견고히 했다.

‘쉘’은 지난 해 11월, 로시크숨마 골든 베이스와 쉬어 커버 파운데이션을 출시하며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위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쉘의 첫 제품으로 광채와 커버력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주는 메탈 쿠션과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주는 피니싱 팩트를 선보인 것.

‘로시크숨마 쉬어 커버 메탈쿠션’은 뛰어난 밀착력으로 멍침이나 들뜸 현



상 없이 피부 잡티를 균일하게 커버해 준다. 로시크숨마 스킨케어 제품에 함유된 주요 성분을 담아 절정의 빛을 선사하는 이 제품은 쫄쫄한 영양감으로 피부가 차오르는 느낌을 선사하고 고인체적용시험

을 통해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피부 광채와 커버력을 입증 받았다.

‘로시크숨마 골든 피니싱 팩트’는 베이스 메이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피부에 가볍게 터치하면 섬세하게 밀착돼 매끄러운 벨벳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준다. /신원선 기자

### 유통 단신

#### 락앤락

### 뚜껑까지 투명한 밀폐용기

락앤락이 보관 중인 식재료 확인이 한층 손쉬운 유리용기 ‘뚜껑까지 투명한 밀폐용기(사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락앤락 ‘뚜껑까지 투명한 밀폐용기’는 내열유리 소재의 몸체에, 유리처럼 투명하지만 잘 깨지지 않고 가벼운 트라이탄을 뚜껑에 적용해 유리 용기의 특징점을 강화한 제품이다. 기존의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뚜껑과 달리 위에서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고, 전면이 투명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도 준다.

#### 동원F&B

### 팽수 참치캔 ‘남극펭귄참치’

동원F&B는 오는 16일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팽수 컬래버 참치캔 ‘남극펭귄참치(사진)’ 패키지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남극참치 패키지는 남극참치 5캔과 팽수 캐릭터가 그려진 ‘팽수참치’ 1종으로 구성됐다. ‘팽수참치’는 팽수의 귀여운 표정과 팽수의 재치 있는 어록이 담긴 총 15종의 디자인 제품으로 구성됐다. 알록달록한 색감과 앙증맞은 디자인으로 재미를 더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MASERATI

ALMANAC 070-7840-1715  
www.almanac.co.kr

동네방네

완도해양경찰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강화

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완도해경은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등 먹거리 안전침해 사범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설 명절 전·후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해경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단속 지역은 완도를 비롯해 해남, 강진, 장흥 지역일대까지이며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회 센터, 양식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축산전염병 등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축산가공품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행위이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상주시는 제3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상주시 “마을세무사에게 세금 상담받으세요”

상주시는 제3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서동출·조강재·이정형·김성해 세무사 등 4명이

다. 이들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 등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임기는 이달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년이다.

/경북=김홍기 기자

곡성군 中企박람회 참가비 지원... 최대 백만원

곡성군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에 개별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박람회 부스 임차료, 설치비, 경비 등 업체당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곡성군청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받는다. /전남=김태수 기자

광양시, 독거노인 위급 신고 도로명주소 배부

광양시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이 위급상황 속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신고용 ‘실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를 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내표지 배부는 긴급상황 발생으로 112, 119 등에 신고 시 도로명

주소를 몰라, 건물 외부로 나가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안내표지에는 우리 집 도로명주소, 긴급 전화번호(112, 119)와 함께 가족 등의 전화번호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공영시장 위상 재확인

거래액 1조 육박... 8.2배 ↑

(30년간)

2018년 거래물량보다 5.7% 증가 시장내 거래활성화 시책 적극추진 도매시장 중앙평가 3년연속 우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대구도매시장)의 2019년 연간 거래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도매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작황호조에 따른 가격 하락폭 확대 및 하반기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총 거래금액 9363억원을 달성해 2016년도 이후 4년 연속 거래금액 9000억원대를 돌파했다.

도매시장의 총 거래금액은 청과 및 수산, 축산, 약재부류 등을 포함한 거래실적이다.

1988년 개장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한강 이남 최대 농산물 집산지로, 1989년 거래물량 10만8698t에 거래금액 1139억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2000년도 49만1795t에 3822억원, 2010년도 51만1729t에 7380억원 2019년도에는 60만62t에 9363억원을 기록해 개장 당시보다 거래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다음으로 큰 전국 규모다.

지난해 농산물 가격 하락세 지속 및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정상운영화를 위한 진통 속에서도 대구도매시장은 청과부류 56만4689t(7870억원), 수산부류 1만2689t(909억원) 달성으로 2018년 거래물량 56만7688t보다 5.7%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타 도매시장이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전년 대비 거래 물량이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대구도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 전경

매시장이 지역 거점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이다. 이는 도매시장 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 성과로 풀이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실시한 2018년도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중앙평가 결과 개설자 부문에서 A등급으로 선정되면서 2016년 평가 이후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법인·공관장 부문에서는 대구중앙청과(주), 대양청과(주) 등 2곳이 A등급으로 우수법인에 선정됐으며 한 공영도매시장에서 우수법인이 2개 선정된 곳은 대구도매시장이 유일하다.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의 도매기능 약화 및 소매 활성화 추세이나 대구도매시장은 법인에 대한 지도, 관리 강화로 산지 수집활동 독려, 물량 분산 확대 등 도매기능을 강화해 지역 거점 도매시장으로서 농수산물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시설현대화를 통해 공영도매

시장의 공익적 기능도 높일 계획이다.

문점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대구도매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래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매년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는 거래금액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유통종사자들과 합심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유통종사자간 전원 합의를 통해 확장재건축으로 결정돼 총사업비 107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 사업에 대상으로 선정돼 시설비의 30%를 국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거점 공영도매시장의 역할과 더불어 안전한 식재료 유통을 통해 공영급식과 지역 로컬푸드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김홍기 기자 gj2136@metroseoul.co.kr

광주시-5개 자치구 상생협력 위해 ‘맞손’

제4차 시·자치구 상생회의의 20대 핵심시책 협력 당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상생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차 시·자치구 상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 ▲노사상생의(주)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대대적인 투자유치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세계화 ▲광주전남 상생협력 등 올해 20대 핵심시책에 대해 소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또 이용

섭 시장 주재로 당면 현안을 협의했다.

광주시는 ‘정의로운 광주 실현을 위한 범시민운동 추진’에 대해 치구의 협조를 요청했다.

자치구는 ‘광주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 건의’와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 위한 거버넌스 구성 건의’ 등 2건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이들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해당 자치구 협의를 거쳐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광주 시대를 열어 광주를 대한민국 정치1번지에서 경제1번지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광주지역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수출바우처 1차 사업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2020년 수출바우처 사업’ 1차 참여 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다양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와 지원 기관을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는 수출 플랫폼이다.

바우처(Voucher)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바우처 매뉴얼에 등록된 중진공, 중소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5000여개 사업에 1년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수출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성장바우처 사업’에 집중했다.

올해는 ‘혁신바우처 사업’을 신설하고 브랜드K 선정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을 구분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Weather forecast for January 10th (Friday) with temperature range of -4 to 4°C and a map of South Korea showing regional weather conditions.

# “서울 스마트 인프라 구축, 시민 알권리·디지털 기본권 보장”

CES 2020

박원순 서울시장 기초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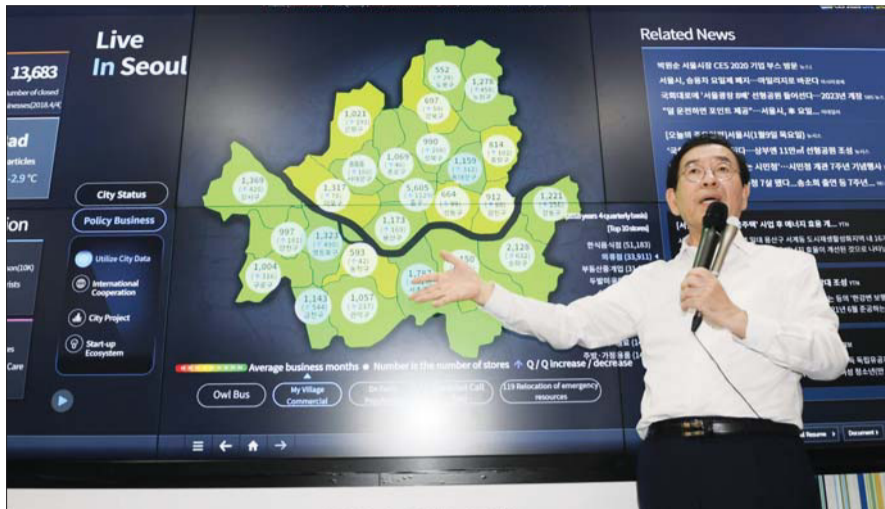
“기술은 사람 위해 활용될 때 가치” 스마트 시티, 사람 삶에 맞춰 발전 국내 기업 부스 돌며 체험·세일즈

“어려움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생각을 벗어나는데 있다”

박원순 시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0’ 스페셜 세션 기초연설에서 경제학자 케인즈의 말로 운을 뚫었다.

박 시장은 “기술은 사람을 위해 활용될 때 가치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서비스의 혁신뿐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와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4차 산업 기술을 어떻게 도시행정에 접목시켜 제도화하고 시민들의 삶에 녹여낼 것인가가 중요한 화



박원순 서울시장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 참석해 디지털시 민시장실을 시연하고 있다.

두가 됐다”며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은 스마트시티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정책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화재·재난·교통 등 서울의 주요 현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알렸다.

도시 전역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과 서울시내에 설치된 수천개의 사

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도시데이터를 수집,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박 시장은 “스마트시티는 편리한 교통, 깨끗한 환경 등 도시가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면서 사람의 삶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설 이후 박 시장은 세계 각국



박원순 시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2020’에서 8일(현지시간) ‘스마트시티 서울이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주제로 기초연설을 했다. /서울시

패널과 토론을 이어갔다. 통화량 빅데이터로 최적의 노선을 도출한 ‘올빼미 버스’, 상암에 구축한 세계 최초 ‘5G 융합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소비·유동인구와 관련된 월 100억건의 데이터를 활용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도 소개했다.

CES 테크 웨스트에 마련된 ‘서울관’에서 박 시장은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시연했다. 재난사고 상황 발생 시 처리 현황과 실시간 교통 상황 확인이 어떻

게 이뤄지는지 보여줬다.

이어 서울관에 자리한 국내 20개 기업의 부스를 돌며 이들이 CES에 출품한 혁신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바이어들에게 세일즈했다.

박 시장은 CES의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의 게리 사피로 회장과 만나 서울시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박 시장은 게리 사피로 회장에게 ‘CES 서울’ 유치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마이스(MICE) 세계 3위 도시로서 각종 전시시설, 호텔, 문화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갖췄다”며 “타 도시들에 모델이 될 만한 최첨단 IT 도시로서 CES 개최에 최적의 도시”라고 강조했다.

사피로 회장은 서울의 컨벤션 시설이나 공항 인프라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저녁 CTA 게리 사피로 회장 초청으로 ‘리더 인 테크놀로지’ 만찬에 참석해 첨단기술분야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쌓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국공립어린이집·종합재가센터 14곳 문 연다

(5곳)

(9곳)

서울시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복지 인프라 확충·개인별 맞춤서비스

올해 서울에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가센터’ 9곳이 문을 연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생긴다.

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시는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통한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복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2곳이 새롭게 조성된다. 센터는 중증뇌병변장애인에 맞는 교육, 돌봄, 건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

해 1300만원을 지원한다. 활동 보조시간은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린다.

돌봄 정책도 강화된다. 긴급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돌봄 SOS센터’는 13개 자치구, 228개동으로 확대된다.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5곳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 종합재가센터도 9곳이 추가로 개소해 총 13곳으로 늘어난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2.94% 올리고, 해산(출산)급여는 10만원 늘어난 70만원, 장애급여는 5만원 오른 8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적용받는 중증장애인에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 문턱을 낮춘다. /김현정 기자

## ‘국회대로’ 지하화... 상부엔 11만㎡ 선형공원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당선작 선정 광장·커뮤니티센터 등 9개 공간 조성

국회대로가 서울광장 8배 규모의 대규모 선형 공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적구창신’(씨토포스 외 4개사)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대로는 서울 서부지역의 관문이자 서울과 경기·인천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다. 1968년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으로 개통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대로는 지난 반 세기 동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가 됐고 도시를 남북으로 가르며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해왔다”며 “또 하루 최대 19만대에 이르는 차량이 지나면서 삼승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소음과 환경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국회대로 지상 도로를 지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서울시

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 대상지는 신월IC~국회의사당 교차로 7.6km 구간이다. 투입 예산 규모는 약 573억원이다.

시는 내년 4월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지하 2층, 총연장 7.53km)을 개통할 예정이다. 터널 공사 막바지 시점인 올 하반기 중으로 국회대로 지하차도(총연장 4.1km)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상부 공원 공사를 시작한다. 2024년 6월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시는 상부 공원을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형태의 선형공원으로 만든다. 총면적은 약 11만㎡(길이 7.6km, 폭 40~55m)로 서울광장의 8배다.

‘적구창신’은 “오래된 기억과 흔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뜻이다. 당선작은 지난 50년간 회색 아스팔트와 소음, 분진으로 기억됐던 국회대로를 다양한 문화와 놀이가 이뤄지는 사람과 자연 중심의 ‘천년의 숲’으로 계획했다. 광장, 키즈팜, 커뮤니티센터 등 9개의 특색 있는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 여성 노동자 10명중 3명 월급여 147만원 ↓

서울시 ‘성인지 통계’ 발표  
女 저임금 노동자 男의 3배

서울 여성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월급여가 147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9일 ‘2019년 서울시 성(性)인지 통계’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성인지 통계’는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건강·환경, 복지, 정치·사회참여, 문화·정보, 안전 등 10개 부문 45개 영역, 424개 통계 지표로 구성돼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서울 전체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는 27.5%로, 남성(9.6%)보다 약 3배 많았다. 저임금 노동자란 월평균 임금이 전체 노동자 중 위소득의 3분의 2인 147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말한다.

서울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10만원으로 남성 334만원의 63% 수준이었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2014년부터 63~64%를 유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 “올해 경기도 경제성장률 2.4% 전망... 설비·건설투자 증가”

경기연구원

세계 경기 회복세에 수출 ‘청신호’

2020년 경기도 경제는 2.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9일 지난해 급격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2.2%를 웃도는

2.4%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출 회복과 더불어 설비투자자와 건설투자자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 대외 불확실성 감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지지효과 등으로 경기도 수출의 성장을 전망했다.

고용과 관련, 올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조업계 신규 채용을 위축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경기도 민간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올해 경기도 경제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내수 경기 회복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 구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경기=박완희 기자 wanhee@



[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내벤처로 혁신  
자율 점검체제로 신뢰 회복”  
08



Life

[라이프]  
아모레퍼시픽  
미용에 혁신기술 더해  
‘꿀피부’ 선사  
니



# ‘과일 둘, 설탕 하나’ 수녀들의 레시피, 福 깃든 과일잼으로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대상F&B ‘복음자리 잼’

복음자리공동체 주민 자립 위해  
떨어진 포도 구입해 잼 만들어  
외국인 수녀 도움 받아 본격 제작

당도 낮추고 식감 살린 ‘45도 과일잼’  
소용량·바로 짜서 먹는 잼 등  
사용 용이·위생적인 제품 개발

복음자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福音)이 깃들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만들어진 마을공동체 이름이다.

복음자리 공동체 주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가꿀 수 있는 ‘자립’이 필요했다. 마을 사람 중 신명자(복음자리 이사장)씨가 마을 주변의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 알갱이들을 싸게 구입해 잼을 만들기 시작했다. 잼의 이름은 ‘복음자리 잼’이다.

#### ◆복음자리 역사

외국인 수녀들의 도움으로 ‘과일 두 바가지에 설탕 한 바가지’ 레시피를 활용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잼을 만들기 시작했다. 1993년 경기 시화공단에 잼 공장을 세웠으며, 1996년 복음자리가 설립됐다.

이후 복음자리는 주요 백화점 입점과 해외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했다. 2000년 미국에 잼과 차류 수출을 개시했고, 다수의 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해 복음자리 브랜드를 널리 알렸다. 2004년 논산 2공장 설립, 2006년 증축 이전했으며, 2009년 대상그룹 계열사로 편입 및 HACCP(해썹) 인증을 취득했다.

과거 복음자리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를 운영하며 저소득층과 다문화 여성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잼을 판매하는 ‘대상F&B복음자리’는 ‘나눔의 실천’이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 공헌활동 협약을 체결해 기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45도 과일잼 사과, 사과버터(위)와 자두잼



45도 과일잼 파르페 레시피.



바로 짜먹는잼(딸기, 블루베리)

/대상F&B

#### ◆과일 두 바가지 설탕 한바가지

당시 시중에서 판매하는 잼은 점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물을 많이 사용했다. 잼 보다는 젤리에 가까웠다. 또한 생과일 대신 과일 가루를 썼다. 신선한 원료가 아니라서 과일의 풍미를 느끼기가 어려웠다.

이때 외국인 수녀님들은 수도원에서 담그는 잼은 설탕과 과일로만 만든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쉽지 않았다. 잼은 적절한 점성을 지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너무 많이 졸이면 늘어붙고, 덜 졸이면 곰팡이가 필 염려가 있다. 수 많은 시행착오 끝에 복음자리 잼은 ‘과일 두 바가지에 설탕 한 바가지’라는 단순하고도 귀한 레시피를 얻었다.

1980년대 들어 서울의 난곡, 상계동, 목동 등지의 철거민들도 복음자리 마을에 등지를 틀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잼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마을 근처 성당에서 잼을 팔기 시작했다. ‘수녀님들이 만든 잼’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 ◆진심의 작품 복음자리 제품

복음자리는 집에 보관하고 먹기 좋게 출시된 대용량 유리병 형태의 잼에서 벗어나 200g의 소용량 유리병 제품, 바로 짜서 먹을 수 있는 제품 등 사용 용이하고 위생적이며 휴대가 간편한 형태의 잼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보관화된 딸기잼 외에 다양한 과일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잼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망고, 복숭아, 자두 등 과일을 활용하거나, 과일에 버터를 혼합해 부드러움을 강조한 잼 등 다양하다.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 1 ‘45도 과일잼’



과일잼도 당도(Brix)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복음자리는 당도를 낮추면서도 원물의 식감은 살린 ‘45도 과일잼’을 2018년 12월 선보였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사과, 사과버터, 망고, 복숭아 등 7종으로 구성된 ‘45도 과일잼’은 기존의 복음자리 딸기잼 대비 당도(Brix)를 37% 낮춘 45도의 잼을 의미한다.

복음자리가 2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선진 제조 기술을 도입해 탄생한 ‘프레시(Fresh) 공법’을 적용, 단시간 살균 과정을 거쳐 과일 본연의 맛과 향, 색, 식감이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깔끔한 단맛으로 빵은 물론 와플이나 팬케이크에 잼을 듬뿍 발라 섭취하기에 부담이 없다.

#### 2 ‘바로 짜먹는 잼’



복음자리는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에 맞춰 아침 식사 준비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길 바라며 ‘바로 짜먹는 잼’을 출시했다.

바로 짜먹는 잼은 말 그대로 스푼이나 나이프 없이 빵이나 디저트 위에 바로 짜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간편하면서도 맛 좋은 식사나 간식을 준비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짜서 모양을 낼 수 있어 크래커나 와플, 팔링수 위에 토핑 스스로 올려 색다른 나만의 디저트를 맛볼 수도 있다. 100g의 소용량으로 휴대나 보관이 편리하며, 튜브 용기로 제작돼 깨질 위험이 없어 어린이가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

최근에는 인기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안녕 자두야’와 컬래버레이션한 ‘자두잼’을 선보였다. 100% 국산인 자두를 사용했으며 새콤달콤한 자두 본연의 맛과 향을 살렸다. 바로 짜먹는 딸기잼, 바로 짜먹는 블루베리잼, 바로 짜먹는 사과버터잼, 바로 짜먹는 망고잼, 자두잼 등으로 구성됐다.

#### 3 ‘티룸’



집에서도 카페 수준의 음료를 만들어 즐기는 ‘홈카페(Homecafe)족’을 겨냥해 출시된 티룸은 ‘차를 마시는 나만의 힐링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향긋한 플라워와 새콤달콤 과일을 블렌딩한 ‘티룸 플라워 4종’, 과일과 상큼한 허브를 블렌딩한 ‘티룸 허브 2종’의 총 6종으로 출시했다. 티룸 6종 모두가

이스티를 만들 수 있는 액상형 차제품으로 원액을 물이나 탄산수에 타는 손쉬운 방식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전문카페에서 즐기던 음료를 맛볼 수 있다.

#### 4 ‘바로 발라먹는 스프레드’



‘바로 발라먹는 스프레드’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버터와 마늘·고구마의 진득한 풍미를 가득 담은 제품이다. 버터의 부드러움을 베이스로 하면서 마늘과 고구마의 조화로운 풍미를 느끼게 한 것이 특징으로 다양하고 이색적인 맛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자극하기에 알맞다.

자칫 느낄 수 있는 버터의 맛을 마늘의 향긋한 향미가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이 특징인 ‘마늘버터 스프레드’와 달콤한 고구마에 버터, 시나몬의 은은한 향이 더해진 ‘고구마 스프레드’로 구성됐다. 용기 형태는 바로 짜먹는 잼과 동일하다.

대상F&B복음자리 관계자는 “주요 소비층인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이색적인 맛의 잼 제품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또한 ‘45도 과일잼’ 등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꾸준히 연구해 ‘잼은 너무 달아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소비자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